

‘뷰티 한류’ 눈독 들이는 글로벌 큰손

골드만삭스·베인캐피털, 카버코리아 지배지분 인수
LVMH그룹 투자 자회사도 ‘클리오화장품’ 투자
WSJ “中자본도 한국 화장품업체 직접투자 모색”

세계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업계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두 건의 자본 인수 발표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와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은 18일 공동으로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A.H.C’를 거느린 카버코리아 지배지분 인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베인캐피털은 이번이 첫 한국 투자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WSJ에 “이번 지분 인수로 카버코리아의 가치가 약 6억 7500만 달러(약 7661억 원)로 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후반에는 또 다른 대규모 투자 발표도 예정돼 있다. 프랑스 명품 대기업 LVMH그룹의 투자 자회사가 고

속 성장하고 있는 클리오 화장품 지분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WSJ는 이 두 건의 투자에 대해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트렌드의 선도자로서, 한국 화장품업체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임 투표와 마찬가지로”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내 화장품업체의 양대 산맥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 수년간 추가 급등을 즐겨왔다. 한국 면세점 운영업체들도 국내 화장품에 대한 높은 인기, 특히 중국 소비자들로 부터의 뜨거운 인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2014년 초 이후 네 배 이상 급증해 현재 약 220억 달러에 달하며, LG생활건강의

시총도 두 배 이상 늘어난 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때 한국 증시를 선도했던 조선 및 정유업계를 능가하는 성적이다. WSJ는 비상장사인 우주소인사이언스가 이르면 내년 기업공개(IPO)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 가치를 10억 달러로 뛰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화장품 업계에 대한 러브콜은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화장품업체 강자인 미국 에스티로더는 지난해 말 ‘닥터자르트(Dr. Jart+)’라는 브랜드로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해브앤비를 사들였다. 중국 투자자들도 한국 화장품업체에 대한 직접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브렉시트·사드·파업’ 악재 넘을 MK의 ‘반전카드’는…

정몽구 회장 해외법인장회의 주제 중국판매 악화 대책 논의

정몽구(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마이너스(-) 2.4%’라는 올 상반기 성적표를 놓고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다.

정 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본사에 전 세계 각지 해외법인장 60명을 불러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는 해외법인장회의는 정 회장의 발언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경영비전을 분석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의 올 상반기 성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하반기 경영전략에 대한 정 회장의 주문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업계 주요 이슈로 부상한 브렉시트·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된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도 5년 연속 파업사태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2년 연속 판매 목표 실패’라는 위기감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브렉시트가 현대·기아차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

히 점검하고 그 타격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해 주었다.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정 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감안하면 ‘반전카드’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는 브렉시트 출구 전략 방안이 제시됐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판매량을 늘리며 세계 완성차 업체 ‘빅5’로 거듭난 만큼 이번 브렉시트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시장 내 현대·기아차의 판매 전략도 주요 키워드다. 중국 시장은 글로벌 최대 생산기지다. 중국 시장의 부진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드 배치로 분위기는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현대차 중국공장인 북경현대자동차(BHMO)의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52만2769대로 지난해 동기(51만2292대)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55만2970대)보다 3만201대 적은 수치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올해 판매 목표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철우 기자 acw@

‘ISA’도 갈아타세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사 간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 18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ISA계좌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부터 ISA 가입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 상품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며, 계좌 이동은 기존 금융사의 ISA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환매해 현금화한 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 ISA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産銀, 이 와중에... ‘낙하산 인사’ 구설수

대우건설 차기사장 선임 ‘시끌’
선정절차 변경·외압설 논란에
사추위, 고성·위원 퇴장 파행
産銀 특정인사 낙점 압력 의혹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방만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산업은행이 이번엔 대우건설의 차기 사장 선임을 두고 낙하산 인사설에 휩싸였다. 상식을 벗어난 선정 절차 변경과 밀실 추천 논란이 더해지면서 외압설 논란

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대우건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5명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20일 조응수 전 대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부사장)과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마지막 면접을 거친 뒤 후보를 압축, 21일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에 박 상임고문을 최종 후보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사회에 앞서 20일 치러지는 최종면접은 형식적 이벤트에 그칠 가

능성이 커졌다. 최종면접이 아예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의식해 외부 출신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은행이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에 부담을 느껴 외부 출신을 선임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해외사업이 건설사 실적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박 상임고문이 주력 분야였던 주택사업을 더 강화해 산업은행이 원하는 실적 개선과 주가 회복을 만들



박창민



조응수

어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일정 변경이 계속된 데다 사추위가 30명에 가까운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참석자 중 한 명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는 등의 이야기가 불거져 정치권과 산업은행이 특정인을 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외압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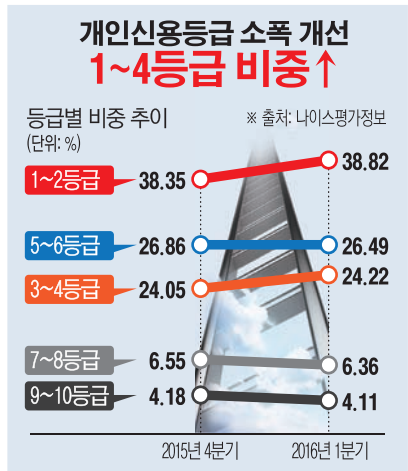
김동호 기자 sorahosi@

데이터 뉴스 Data News

저금리 장기화 ‘갈 곳 없는 돈’ 증가

단기 부동자금이 950조 원을 돌파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갈 곳 없는 돈이 단기 금융상품에 몰린 결과다. 18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단기 부동자금은 958조9937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08년 말 539조3000억 원에서 이듬해 646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던 단기 부동자금은 2013년 말 712조9000억 원, 2014년 말 794조8000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주현 기자 jooh@



이자부담 줄자 개인 신용등급 향상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면서 지난 1분기(1~3월) 개인신용 등급이 소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용정보업체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1분기 개인신용 등급을 받은 4434만7486명 중 최우량 등급인 1~2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38.82%다. 지난해 4분기(38.35%)보다 0.4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우량 등급인 3~4등급도 24.22%로 전 분기(24.05%)보다 0.16%포인트 늘었다.

정다운 기자 gamja@

스페셜 ▶ 16

기업 지배구조 6 한진그룹

e기업 집중해부 ▶ 17

카카오의 두뇌들

비즈&비즈 ▶ 18-21

바캉스철 식음료

김상철 회장 ▶ 박지원 부회장 ▶ 12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라인 상장 벨 누르는 순간 울컥... 성공 비결은 절박함”

이해진, 3년 만에 공식석상

美증시 상장 장면 TV로 보며 몽클
10년 전 만나 글로벌 성장 함께 고민
신중호 CGO에 “울지 마라” 메신저
“신 CGO, 라인 성공의 일등공신
나보다 더 많은 스톡옵션은 당연”

TV로 신중호 라인 CGO(최고글로벌책임자)가 타종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상장식을 진행하던 그 순간, 이해진 의장은 그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상장식 현장에 있던 신중호 CGO와는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눴다.

이 의장이 신 CGO에게 “울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신 CGO에게서 “영어 인터뷰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의장은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그 마음 잘 안다”면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물론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그가 일본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상장을 이루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순간이었다.

“성공하고 싶었고 그 동안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꿈만 같다. 전날 잠을 많이 못 잤다.” 이날 이 의장은 설레는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 의장과 신 CGO는 10년 동안 일본 시장에서 팔찌 상황을 겪어왔지만, 수많은 방안을 구상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역경을 극복했다. 그는 둘의 관계에 대해 “술 한잔 하면서 해 뜨는 것을 함께 보는 각별한 사이”라고 다소 낮 간지러운 표현을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15일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의 상장에 맞춰 강원도 춘천 인터네트데이터센터(IDC) '각'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호 라인 CGO

인수하며 일본 내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의장이 신 CGO와 함께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신중호 CGO는 당시 첫눈의 검색 방법이었던 ‘스노랭크’의 핵심 개발자 중 한 사람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첫눈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을 정도로 IT업계에서 주목

했다.

이해진 의장에게 ‘라인’은 숙원 사업과도 같았다. 네이버는 2000년 일본에 진출한 이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지만 계속된 실패를 맞았다. 그러던 중 2006년 검색엔진 ‘첫눈’을

받는 신인 벤처였다. 하지만 구글의 손을 뿌리치고 네이버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의장은 2011년 네이버재팬을 다시 설립하며 신 CGO를 급파했다. 신 CGO는 일본 현지에서 직접 소통하며 기회를 모색했다. 그는 같은 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놓치지 않고 기회로 만들었다. 대지진 이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본 그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점을 내세워 라인을 세상에 선보였다.

그렇게 탄생한 라인은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다. 1년 만에 글로벌 가입자 5000만 명을 기록하며 2014년에는 무려 4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현재 라인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는 2억1840명에 달한다. 이 의장은 라인 글로벌 가입자가 3억 명을 돌파했던 2013년 일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하며 라인에 대한 애착을 과시

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이 같은 라인의 성공이 신 CGO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이 의장은 “신중호 CGO는 일본에서 헌신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겪어냈고 성공했다”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의 헌신과 절박함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10년간의 힘들었던 시간을 버틴 이들은 이번 상장으로 나란히 스톡옵션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다. 라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해진 의장은 557만2000주, 신중호 CGO는 1026만4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공모가(3300엔)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해진 의장은 2100억 원, 신중호 CGO는 3900억 원 수준이다. 이 의장은 신 CGO의 스톡옵션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 “그는 수년간 일본에서 헌신하며 어려운 문제를 겪어냈다. 이는 정당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글로벌 공략 신무기는 ‘V라이브’ ‘웹툰’

〈동영상〉

〈만화〉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 ‘V라이브’와 ‘웹툰’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최근 미국·일본에 동시 상장한 ‘라인 신화’의 명맥을 이을 차기 성장동력으로 꼽히면서다. 한류와 연계할 수 있어 파급력이 세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15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데이터센터 ‘각’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V라이브와 웹툰을 일부 차별화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해나갈 계획”이라며 “미국과 같은 큰 시장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운영 중인 V라이브는 스타의 일상에서부터 콘서트, 웹예능, 토크쇼 등 다양한 방송을 언제 어디서

나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라이브 서비스다. 지난해 7월 말 출시

해 1년 만에 전 세계 210개국에서 누적 다운로드 2000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아이돌그룹 엑소와 방탄소년단을 활용한 유료 모델 ‘V라이브플러스(V Live+)’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구매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함께 거론된 네이버 웹툰은 웹 연재만화다. 2004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약 180종의 작품을 연재 중이다. 오랜 인프라를 바탕으로 게임 IP, 캐릭터 산업, 유료 결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다만, 네이버는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게임 사업 진출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 의장은 “네이버는 향후에도 자체적으로 게임을 만들거나 운영하지 않겠다”면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바일 시대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싸우려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 이 의장의 철학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한국인 경영진만 스포트라이트” 日 언론 ‘부러움 반 질투 반’

일본의 국민 메신저 앱으로 자리 잡은 라인이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증시 상장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페이스북과 위챗 등이 선점한 글로벌 소셜 미디어 시장에 화려하게 첫발을 내디뎠다.

일본 언론들은 라인의 상장은 성공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라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모기업은 한국 기업이지만 대부분의 임직원과 사용자가 일본인이라는 점에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상장 기념 오프닝벨 이벤트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신중호 최고글로벌책임자(CGO)와 황인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한국계 임원들이 벨을 올린 점에 주목했다. 당시 이데자와 CEO는 도쿄 시부야에 있는 라인 본사에서 TV 화면으로 직원들과 함께 회사의 뉴욕 상장 장면을 지켜봤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 CGO가 글로벌 시장 관계자들이 즐겨 보는 CNBC에 출연했다는 점

에 주목, 미국 투자자들에게 그가 라인의 경영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라인은 2011년 일본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다. 갑자기 한국계 경영진이 전면에 나서면서 다소 혼란스럽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신문은 라인 상장 후에도 네이버가 라인 주식의 80%를 보유하는 데다 라인의 성공 배경에 네이버의 인재와 아이디어가 배경이 된 만

큼 신 CGO가 오프닝벨을 올린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토종 일본 기업보다는 ‘다양성’을 지닌 기업이 뉴욕증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소니가 뉴욕증시에 상장한 이후 많은 일본 기업들이 같은 문을 두드렸지만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한 반면 미국 실리콘밸리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모인 토양을 배경으로 세계적 벤처기업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라인은 한국·일본의 경영자와 엔지니어들의 공동 작품으로 글로벌 무대 데뷔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친환경 가스냉방으로 더위도, 요금부담도 DOWN!

-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입니다!
- 경제적인 에너지입니다!
- 안전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환경을 생각합니다!

구분	설치 장려금	설계 장려금
GHP(가스엔진구동식)	RT 당 24만원~30만원	RT 당 1만원
가스흡수식 냉온수기	RT 당 4만원~15만원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www.kogas.or.kr> ▶ 사업소개 ▶ 고객지원제도 ▶ 가스냉방

국민의 정부 3.0

3년의 혁신 3개의 과제

30년의 성장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6000명 ‘피의 보복’ 후폭풍...18조원 외인 투자금 ‘셀 터키’?

‘쿠데타 실패’ 터키경제 앞날은

◇리라화 폭락·관광산업 타격, 경제가 흔들린다 = 미국 달러화당 터키 리라화 가치는 쿠데타가 발발한 지난 15일(현지시간) 장중 최대 6%까지 급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0월 이후 8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후 낙폭을 줄인 리라는 달러당 4.6% 급락한 3.0157리라로 지난 1월 26일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소식에 리라화 가치는 약 2% 반등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주수입원인 관광산업도 위태롭다. 터키는 동서양 문명이 교차한다는 매력 때문에 그동안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덕분에 관광산업은 터키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잇단 테러와 지난해 10월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 등으로 이미 관광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쿠데타까지 일어나면서 관광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터키의 지난 5월 관광 수입은 전년보다 23% 줄었다.

또한 터키는 경상수지 적자국이어서 해외에서의 자금 유입에 많이 의존해왔다. 올 들어 5월까지 터키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158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했다. 그중 직접외국인투자(FDI)는 23억 달러로 이는 1년 전보다 50% 줄어든 수준이다. 나머지 자금은 증시와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단기성 투자자금인 핫머니가 대부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들 자금은 철물처럼 빠져나갈 위험에 처했다.

아울러 터키는 아시아 기업의 유럽과 중동 수출 거점 역할도 해왔는데 이마저도 불투명해지게 됐다.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주말 현지 공장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투자자 불안 달래기 나선 정부와 금융당국 = 액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터키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메흐메트 심шек 터키 부총리는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무랏 세틴카야 터키중앙은행 총재와 논의했고, 국제 투자자들과의 전화 회의로 있다”며 “터키는 쿠데타 시도가 무산된 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거시경제적 기초는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테러에 쿠데타까지...경제상황 최악

리라화 4.6% 폭락 관광산업도 타격

경상수지 적자국 외채 핫머니 의존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동성 불안 확산

군인·범조인 등 관련 세력 체포...

에르도안 대통령 대대적 숙청 우려속

英 FT, 올 성장률 3%...1.5%PI 전망

터키중앙은행은 오는 22일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당초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이번 쿠데타에 따른 리라화 가치 추락으로 전망이 불확실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테러 등 불안정한 정세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행보에 이미 투자 심리가 약화된 상황이어서 자금 유출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셔널뱅크 오브 브루다비(NBAD)의 차반 보가이타 시장전략 대표는 “쿠데타 시도로 투자자들이 터키 시장 참여를 더욱 꺼릴 것”이라며 “최소한 정치 상황이 안정을 찾는 것을 보기 전까지 그런 불안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데타 배경과 전망은 = 이번에 쿠데타가 발발한 건 총리를 세 차례 연임하고 지난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4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에르도안에 대한 군부의 반발이 배경에 있다. 터키에는 이슬람국가(IS)를 공급하는 연합군의 공군기지가 있으며 유럽과 중동의 중간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며 유럽의 난민 문제 부담을 더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을 보이는 에르도안의 강권 통치에 세속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군부에서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쿠르드족 반군을 과도하게 진압하면

서 테러 정책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쿠데타가 6시간 만에 무기력하게 진압됐다는 점을 들어 에르도안의 자작극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이번 쿠데타를 진압하고 나서 약 6000명의 군인과 범조인을 체포, 미국과 독일 등이 ‘피의 보복’을 자제하고 범죄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은 자신의 최대 정적으로 현재 미국에 망명 중인 이슬람 성직자 팻홀라흐 굴렌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양국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유라시아그룹의 나즈 마스라프 애널리스트는 “터키의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쿠데타 전에도 올해 터키의 경제성장률이 3~4%로, 지난해의 4.5%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버스 연설을 하고 있다. 터키는 쿠데타 발생 6시간 만에 이를 진압했으나 향후 경제와 정국이 더욱 불안에 휩싸이게 됐다. 이스탄불/신화뉴스



에르도안 대통령 “탱크에 맞서달라” SNS 시민에 진압당한 6시간 쿠데타

평소 SNS 폼파...위기 물리자 적극 활용 아이폰 영상 통화로 대국민 메시지 호소

터키 군부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와 민영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이어왔으나, 정작 위기에 물리자 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터키 군부 쿠데타 시도에 맞서면서 SNS를 심분 활용했다.

쿠데타를 시도한 터키 군부는 전통 미디어인 국영 방송사와 위성 통신망을 포함해 교량, 공항, 의회 등 주요 ‘오프라인 시설’을 장악했다. 그러나 쿠데타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일반 시민들이 탱크를 막아서면서 쿠데타 개시 6시간 만에 무산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남서부의 에게해 휴양지 마르마리스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군부의 쿠데타 시도 소식을 접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타튀르크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 아이폰 영상통화인 ‘페이스타임’으로 터키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6일 오전 12시 24분(현지시간) 페이스북으로 연결한 CNN 워크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 광장, 공항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16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이동 중인 탱크를 막아서고 있다. 앙카라(터키) AP/연합뉴스

으로 나가 정부에 대한 지지와 단결을 (군부에)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봉기를 시도한 세력은 군부에서 소수에 불과하다”며 “지금 양키라로 복귀 중이며 (쿠데타는) 곧 진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대통령의 건재함을 확인한 지지자들이 거리에 나왔고, 군부의 탱크를 막아서는 등 쿠데타에 맞섰던 것으로 CNN은 보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좋은 커피는 아이스로
즐길 때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여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느린 카페 KANU

유동기판 확인하여 식품안전 확보받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커피

勞도 使도 불만인 ‘최저임금 6470원’

7.3% 올랐지만 인상을 상승세 꺾여... 노동계 “일방적 결정”
경영계 “최근 4년 동안 33% 올라... 영세·중소 부담 커질것”
매년 반복되는 노사 기싸움에 최저임금위 무용론까지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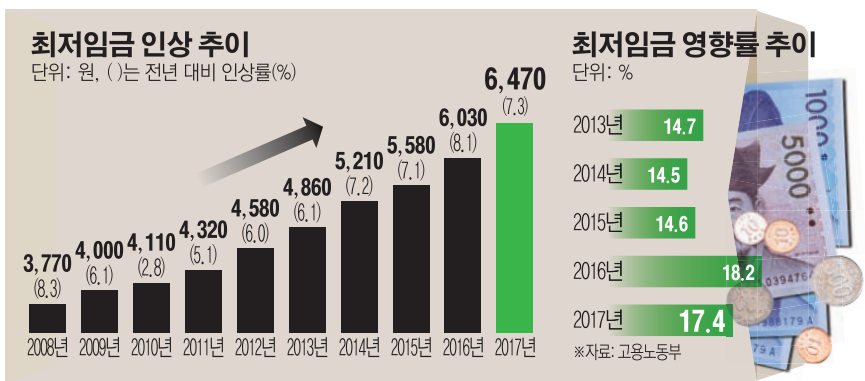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노사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3%(440원) 올랐지만 인상 폭은 낮아지면서 2011년부터 이어져온 최저임금 인상을 상승세는 꺾였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도 4년 새 33%나 오른 최저임금에 조선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불만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 간 협상안을 내지 못한 채 지리한 기싸움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독립적 논의기구 설립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 새벽 열린 제14차 전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 측이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인상안(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른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 인상을 7.3%는 올해(8.1%)보다 떨어진 수준이다. 최저임금 영향률도 올해 18.2%에서 17.4%로 하락했다. 노동계는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커녕, 오히려 상승세가 후퇴함에 따라 근로자위원직 사퇴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항의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률은 낮아졌지만 인상액으로 보면 역대 두 번째



로 높은 수준이며, 2013년 4860원에서 4년 새 33%나 오르면서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도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까지는 전례없는 우여곡절과 진통이 이어졌다.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역대 최장 기간, 최다 회의를 거치는 동안 노사는 각자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아 회의는 파

행을 거듭하기 일췌였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제도 또다시 위기에 몰렸다. 양대노총은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 논의 행태에 노사 대표들을 배제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들만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한국·몽골 FTA 추진 합의 車·식품·석유제품 수출 ‘화색’

박대통령 오늘 귀국
석탄·구리 등 수입가격 낮아질듯
5조원 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도

우리나라가 몽골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FTA가 체결되면 몽골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식품, 석유제품을 포함해 전자제품 등의 관세가 인하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차하이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전날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다.

EPA는 상품과 서비스 등 교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FTA의 일종이다. 산업·투자 확대를 강조하는 것이 차이다. 몽골이 한국과 EPA를 체결하면 지난달 발표된 일본과의 EPA에 이어 두 번째다. 양국은 EPA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 세부 연구범위, 기간, 연구진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바로 공동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구를 끝내면 정식으로 EPA 협상을 개시한다. 실제 협정 체결까지는 4년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구리(세계 2위)와 석탄(세계 4위)을 비롯해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 시장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은 몽골의 4대 교역국가로 지난해 2억9000만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몽골 울란바토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러의 교역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EPA가 성사되면 대몽골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식품, 석유제품을 포함해 전자제품 등의 현지 수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석탄과 구리, 희토류 등 몽골의 천연자원 수입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양국은 또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등 경제 분야 16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MOU를 체결하고 몽골 제5열병합발전소, 신재생사업 공동 개발, 복대량산 철도 건설, 전력 인프라 사업, ICT 기반 의료 기술 협력 등 총 44억9000만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이준식 부총리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처 “작년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총수입 증가 둔화가 원인”

세수 초과달성에도 통합재정 적자
정부는 “추경 등 적극 재정운용 탓”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원인으로 총지출 증가세보다 총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지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총지출이 추경과 본예산보다 적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적이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추경 대비 5조8000억 원 적은 371조8000억 원이며, 총지출은 추경 대비 12조7000억 원 적은 372조 원을 집행했다.

최근 10년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통합재정수지	6	37	15.8	-17.6	16.7	18.6	18.5	14.2	8.5	-0.2	
GDP대비	0.6	3.6	1.4	-1.5	1.3	1.4	1.3	1	0.6	0	
관리재정수지	-8.4	6.8	-11.7	-43.2	-13	-13.5	-17.4	-21.1	-29.5	-38	
GDP대비	-0.9	0.7	-1.1	-3.8	-1	-1	-1.3	-1.5	-2	-2.4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원 적자를 시현했다. 이는 추경 대비 6조8000억 원 개선된 것이나 본예산 대비해선 7조1000억 원, 전년 대비 8조7000억 원 악화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 원 적자를 봤고, 추경예산 대비 8조6000억 원

개선됐으나, 본예산 대비해선 4조6000억 원, 전년 대비 8조4000억 원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5년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초과달성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예산처는 ‘2015 회계 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수지의 악화는 전년 대비 총수입 증가폭(15조4000억 원)보다 총지출 증가폭(24조1000억 원)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총지출은 추경 대비 12조7000억 원, 본예산보다도 3조4000억 원 적게 지출되었으므로, 재정적자는 추경 편성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총지출 증가세보다 총수입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이 이루어지도록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중 기자 zerg@

“무분별 SOC에 국가재정 낭비”... ‘예비타당성 조사’ 국회 검증·벌칙 추진

오늘의 법안
더민주 유동수 의원 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무분별한 대형 사업으로 국가재정이 심각하게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사진)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



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4·13 총선 당시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증하고, 작성자에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사에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예타 조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국회 예산정책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예산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해 관계 중앙관서의 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징벌을 가해 책임감을 높인다. 예타 조사 보고서 작성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에 앞서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대형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예측한 수요량이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며 국가재정이 심각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필호 기자 beetelbum@

국민 2.4명당 車 1대... 캠핑카 10년새 20배

캠핑카가 10년 새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6개월간 50만 대 가까이 늘어 국민 2.4명당 자동차 1대씩을 보유하게 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보다 47만 대 늘어난 2146만4224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098만9855대보다 47만 대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6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분(43만1000대)보다 많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0년 50만 대, 1985년 100만 대, 1992년 500만 대, 1997년 1000만 대를 넘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5년 1500만 대, 2014년 11월 2000만 대를 돌파했다.

올 1~6월 자동차 신규등록은 97만 5000대, 말소등록은 50만1000대였고 이전등록은 190만5000건이 이뤄졌다.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했으며 국산차는 8.9%(6만 8347대), 수입차는 1.7%(2352대) 각각 늘었다. 특히 캠핑카 등록대수는 2007년 346대였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대수가 6768대로 거의 10년 만에 약 20배 급증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만 대를 넘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5년 1500만 대, 2014년 11월 2000만 대를 돌파했다.

올 1~6월 자동차 신규등록은 97만 5000대, 말소등록은 50만1000대였고 이전등록은 190만5000건이 이뤄졌다.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했으며 국산차는 8.9%(6만 8347대), 수입차는 1.7%(2352대) 각각 늘었다. 특히 캠핑카 등록대수는 2007년 346대였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대수가 6768대로 거의 10년 만에 약 20배 급증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우리 아이 어느 대학 보내나



종로학원 대학입시 긴급 설명회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장을 찾은 한 학부모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롯데케미칼 270억대 법인세 부당 환급 ‘소송사기’ 관여 혐의 기준 롯데물산 전 대표 내일 검찰 소환

롯데케미칼 대표 재직 시절 270억 원대 소송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69·사진)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을 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롯데케미칼의 소송사기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출국금지 조치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법인세 등 부당환급 소송 사건을 조사해 이 회사 전직 재무담당 임원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KP케미칼의 공장설비 등 자산을 있는 것처럼 장부에 올려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270여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



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남 석유화학은 2004년 KP케미칼을 인수하면서 롯데케미칼이 됐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2004년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대표이사사를 지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신 회장이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정책본부가 일종의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이 범죄에 지시를 하거나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또 소송을 대리한 대형로펌에 대해서도 세금환급 요구의 기초로 삼은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좌영길 기자 jy97@

고객 정보 관리못한 카드사 3곳 벌금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롯데·농협·KB국민

2014년 대량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드사들이 고객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총 6건 중에 5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농협은행 2건, KB국민카드 2건, 롯데카드 1건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고객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세밀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관리 감독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 데이터를 협력업체에 제공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카드사 직원들이 단순히 의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 방기한 것”이라고 말

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파견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었던 박모 씨가 저지른 개인적인 범행이라 회사 측에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범죄, 즉 2차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카드 3사는 2012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용역 개발을 KCB에 맡겼다. KCB 직원 박씨는 이 과정에서 USB를 이용해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대졸광고업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14년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1인당 10만 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폭스바겐 티구안·골프 등 1858대 리콜

전원공급·어린이보호 잠금 장치 결함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3개 차종 1858대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도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엘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도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과 골프, 폴로, CC 등 4개 차종은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멈춤쇠 레버)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제작된 4개 차종 132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

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엘씨에서 수입·판매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정류기 내부 부품(전원공급 장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07년 9월 3일부터 2011년 9월 13일까지 제작된 GSX1300R 등 9개 이륜차 53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스즈키씨엘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靑·법무부로 번진 ‘진경준 후폭풍’

법무부, 진 검사장 재산공개때
“주식매각 개인거래…문제 없어”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지적도
김정주 뇌물공여는 공소시효 지나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에 법무부의 초기 대응 실패 책임은 물론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문책론도 이어진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57·16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날 새벽 진 위원에 구속된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법무부 간부의 금품 비리 사건으로 국민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 같은 일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진 위원에 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말 법무부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진 위원에 126억 원대 주식 매각 사실이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밝혀진 직후에도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진 위원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후에도 강제 조사권이 없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제를 4개월 동안 끌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 위원은 지난해 ‘감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재산 형성 문제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위원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전달한 김정주(48) NXC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론냈다. 형법은 뇌물을 받은 쪽 외에 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의 경우 돈을 건넨 시점이 2005년이기 때문에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반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인 진 위원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진 검사장이 매입한 주식을 되팔아 상장주인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것은 2006년 11월이다.

좌영길 기자 jy97@

STX조선서 대금 못받은 고성조선 회생 신청

STX조선해양에 이어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도 자금난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해양으로부터 기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이 업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Sulwhasoo

雪花露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음단™으로 비할 데 없는 윤기가 찬란히 빛나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생기가 없어 보인다면 피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히트러진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피부 본연의 윤기를 끌어올려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실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고른 다섯 가지 성분으로 완성한 자음단™이 피부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 피부 균형을 잡힌
 건강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이제, 제대로 된 첫 단계 스킨케어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한 윤기를 경험하세요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https://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글로벌 신약시장 공략

‘성장 절벽’ 한국경제, 활로 찾자 5 제약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는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최근 열린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에서 “앞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단행해 세계 시장에 진출, 무역 흑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18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19조2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0.5% 시장규모가 확대됐다. 의약품 생산액은 16조4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2조5314억 원, 5조36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4.1% 증가했다.

경기 불황에도 제약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한 데는 제약업계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이 큰 몫을 했다. 오픈이노베이션이란 외부의 기술을 내부로 들여오거나 혹은 내부의 기술을 시장으로 내보내 기술혁신의 성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기술혁신 방법을 의미한다.

평균적으로 신약 개발에는 약 10년이라는 기간과 1조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같은 큰 비용과 위험부담을 안고 있

개발 실패 위험·비용 낮추고 기술혁신 성과 높여
제약업계 바이오벤처와 R&D 파이프라인 확대
지난해 한미약품 등 기술수출 총 9조3000억원

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이 지속되자 생존법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직접 연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바이오 벤처 등에서 좋은 후보물질이 있으면 도입계약을 맺고 허가를 받음으로써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실패의 위험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누렸다.

지난해 한미약품을 비롯한 제약업체들이 총 9조3000억 원의 기술수출을 이뤄낸 것도 오픈이노베이션이 바탕이 됐다. 올해 국내 제약사들의 상반기 기술수출 금액도 6000억 원을 넘어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각종 통계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이 신약 개발 기간과 소요되는 경비를 줄이고, 최종 성공률을 높인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개발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Hanmi 한미약품

산·학·연 유망 후보물질 발굴… 해외 판로 적극 개척

한미약품은 올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역량 있는 바이오 벤처,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관점과 가능성을 수용해 나가고자 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했다. 최근에는 한미오픈이노베이션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국내외 유망 산·학·연과의 온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홈페이지에서는 한미약품의 오픈이노베이션 비전 및 경영방침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된다. 특히 한미약품과 협력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Share Your Idea’ 등 접수란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되며, 진행상황은 ‘나의 접수현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한미약품은 유망한 바이오벤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R&D 파이프라인 확장에도 매진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015년 1월 미국 안과전문 벤처기업 알레그로와 200만 달러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알레그로가 개발 중인 망막질환 치료 신약 ‘루미네이트’의 한국·중국 시장 개발·판매권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당뇨, 암 분야에 집중된 한미약품의 미래가치를 안과 영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KAIST 김학성 교수가 설립한 국내 차세대 신약개발 벤처 레퓨젠과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리피바디)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안과와 전신질환(항암, 자가면역)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반기술을 확립하고, 향후 전 임상



한미약품이 바이오벤처 레퓨젠과 차세대 바이오신약 공동 연구에 나선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왼쪽)와 레퓨젠 김학성 대표이사가 작년 8월 열린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미약품

이 완료된 유망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한미약품이 임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오픈이노베이션은 한국의 신약개발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혁신 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 전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폭넓은 R&D 역량을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종근당

작년 임상 30건 국내 최다… 매출액 15% R&D 투자

종근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오직 연구개발에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선진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매년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며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5.4%인 914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후보물질 도출 과정부터 단계별 임상을 위해 비용을 과감히 투자하고 연구개발 인력도 강화했다. 덕분에 종근당의 연구개발 인프라는 업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박사 인력이 전체 연구원의 20%에 달하고 선진 연구개발 시스템을 경험한 해외 연구기관 박사 출신도 대거 포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30건의 임상 승인을 받으며 신약개발 선두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올해도 투자비용을 더욱 확대해 신약개발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종근당의 최종 목표는 세상에 없던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다. 신약 후보 중 고도비만치료제 ‘CKD-732’가 호주에서 임상 2b상(후기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CKD-506’은 올해 해외 임상 1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 전임상 단계인 헌팅턴 질환 치료제 ‘CKD-504’도 해외 임상 1상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통한 해외 진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네스프 바이오시밀러로는 국내 최초로 임상 3상에 진입한 2세대 빈혈치료제 ‘CKD-11101’이 일본으로의 기술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네스프는



종근당 효종연구소 연구원이 약효가 좋은 화합물을 도출하기 위해 합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종근당

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 및 고혈압의 화학요법에 따른 빈혈 치료에 사용되는 조혈자극인자로,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2세대 지속형 제품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종근당의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종근당은 이처럼 탄탄한 신약파이프라인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천안공장에 바이오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공장을 완공해 임상 시료 및 의약품 제조설비를 마련하는 등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의약품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동아에스티

스티렌·모티리톤… 천연물 신약분야 강자 자리매김

동아에스티는 학계나 다른 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개발 과정을 함께하는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공동연구를 통해 제약사에 부족한 연구역량을 보강하고,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픈이노베이션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특히 위염 치료제 ‘스티렌’과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천연물신약 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스티렌과 모티리톤 두 천연물 신약의 소재는 모두 동아에스티가 학계에서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연구·개발에 착수해 신약으로 개발한 오픈이노베이션의 성공적 사례다.

현재 미국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3상을 준비 중인 동아에스티의 천연물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DA-9801’ 역시 오픈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경우다. 2008년 대학에서 신경재생 효능을 갖는 천연물 소재의 신약 개발을 동아에스티에 제안했고, 동아에스티는 제안된 소재 및 아이디어를 검토, 검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신약 연구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이를 통해 통증 완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 치료제와는 달리 신경재생과 보호 효과를 함께 갖춘 ‘DA-9801’을 도출했으며, 보건복지부 국책과제를 통해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했다. 이후 2년간 진행된 ‘DA-9801’의 미국 임상 2상



지난 4월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동아에스티 강수형 사장(왼쪽)과 미국 토비라사 라우런트 피체어 대표가 에보글립틴 라이선싱 아웃 계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아에스티

시험은 우수한 약효를 보여 성공적으로 완료됐으며, 2016년 말 미국 임상 3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처럼 동아에스티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공적인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를 다수 경험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 신약과 바이오 신약 등 다른 분야의 의약품 연구개발에서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선진 기술 및 혁신 소재 도입을 통한 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SK SK케미칼

백신 인프라 4000억 투입… 年 1억4000만 도즈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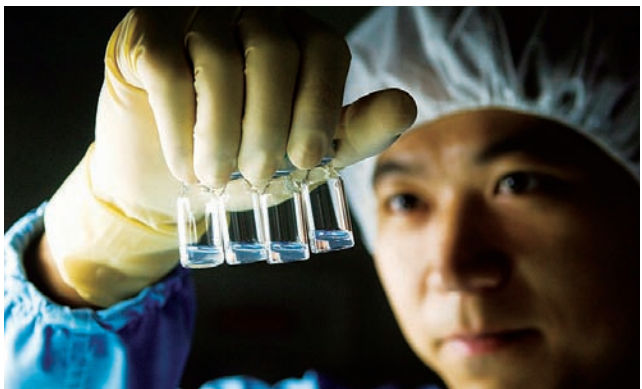
SK케미칼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백신·신약 개발로 성장을 이끌고 있다.

SK케미칼은 2006년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백신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07년에는 바이오벤처인 인투젠을 인수, 바이오 의약분야 진출을 가속화했다. 이후 백신 사업 인프라 구축과 R&D에 약 400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2012년에는 경북 안동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공장 L하우스를 완공했다. L하우스는 세균배양, 세균배양, 유전자재조합, 단백질합성 등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1억4000만 도즈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SK케미칼은 B형간염, 수두, DT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Td(파상풍·디프테리아)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비롯해 뇌수막염, 독감 백신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프리미엄 백신제도 판매한다.

SK케미칼은 지난해 성인용으로는 국내 최초, 소아용으로 세계 최초로 세포배양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를 상용화하면서 백신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스카이셀플루는 출시 첫 해 누적 주문·판매량이 360만 도즈(1도즈=회 접종)를 돌파했다.

1999년 국산 신약 1호 ‘선플라’를 출시했던 SK케미칼은 신약개발에도 꾸준히 R&D 비용을 투자해 다수의 파이프라인



SK케미칼 직원이 바이알을 바라보며 이물질 육안검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케미칼

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달 27일 SK케미칼의 바이오신약인 혈우병 치료제 NBP601(제품명 엠스틸라)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시판 허가를 받았다. 국산 바이오신약이 미국 시장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패치형 치매치료제 SID710을 미국 FDA에 허가 신청한 상태이며, 과민성방광증후군 치료제 THVD201은 임상 3상, 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 SID-142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힘내라! 대한민국!

땀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도전에 성적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땀과 도전이
2016 리우 올림픽 대회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이겨 달라는 말 대신
우리 5천만 국민이 하나되어
소리 높여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더 큰 도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내겠습니다 OK! SK



반도체/정유부문 공식 후원사



‘고리장사’ 고집하는 대형 저축銀

스타·삼호 등 8곳 법정 최고금리 소급적용
대형업체 참여 안해 금리인하 효과 미미

기존 대출자에게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하는 저축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형사들은 아직 동참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스타저축은행과 삼호저축은행은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낮추기 이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개정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 등 6개 저축은행이 기존대출자에게도 개정된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이후 2개 저축은행이 더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3월 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 34.9%에서 연 27.9%로 7.0%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떨어진 최고금리는 법 개정 이후 새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27.9%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재약정하지 않은 이상 기존 최고금리(연 34.9%)를 적용받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법정 최고금리를 자

발적으로 낮춰주는 것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다.

여기에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이날까지 총 8개 저축은행이 최고금리 인하에 나서게 됐다.

다만 지금까지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저축은행들은 이전에도 신용대출을 그리 많이 취급하지 않는 업체들이다.

이날 금리를 낮추기로 한 스타저축은행과 삼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각각 325억 원, 478억 원이다.

반면 신용대출을 많이 하는 대형 6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5조 원이 넘는다. 전체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동참해야 더 큰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작은 저축은행들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대형 저축은행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몇몇 대형 저축은행은 최고금리 소급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규준 기자 abc84@

DGB금융, 200억짜리 ‘LS운용’ 350억에 인수협상…

운용사 급했던 박인규 ‘웃돈매입’ 논란

〈DGB금융 회장〉



대구은행은 지난 2013년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총 7~8차례 금융사 인수에 도전했지만 대부분 중도포기하거나 최종인수자로 선택받지 못했다.

특히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라이벌 부산은행에 경남은행의 주인 자리를 내줬고, 아주캐피탈 인수도 예비입찰을 앞두고 중도포기했다.

현대자산운용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지만, 중간에 철화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인규

DGB금융 계열사인 대구은행은 지난 2월 프놈펜산업은행(PCB) 인수에서 JB금융지주에 고배를 마셨고, 프놈펜산업은행 인수를 통해 수년간 계속됐던 인수 실패의 종지부를 찍으려던 것도 물거품이 됐다.

DGB금융 회장의 리더십도 흔들렸다.

특히 다른 지방지주인 BNK금융지주와 JB금융이 과감한 인수합병으로 수익 개선을 이뤄낸 상황이다.

경남은행 인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BNK금융은 1분기 159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지방지주 중 실적이 좋았다. DGB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JB금융도 올 1분기 55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DGB금융은 올 1분기 전년 대비 4.0% 감소한 1014억 원의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을 보였다. 지난해 DGB생명 인수효과로 실적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지방지주보다 성장세가 둔화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GB금융은 실탄도 넉넉해 적절한 매물을 판단하고 인수합병에 발빠르게 대응했다면 BNK금융 못지않은 성장을 이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27개 워터파크 할인… KB카드 여름 이벤트



KB국민카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무이자 할부 등 ‘2016 위시 페스티벌 서머(Summer)’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KB국민카드 고객들은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등 전국 27개 워터파크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동부화재, 보험금 덜 주려다 ‘기관주의’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동부화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3300만 원, 과태료 165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에 해당하는 조치다.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동부화재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를 부당 선정해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2년 12월 31일부터 지난해 2월 11일까지 8개사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산출해 보험계약을 인수한 것이다. 동부화재는 전체 피보험자 5만1831명 가운데 1만7146명의 위험등급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적용해 정상보험료(50억2000만 원)보다 3억1000만 원 적게 보험료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

동부화재 제재내용

※ 출처: 금융감독원

제재 대상: 기관	제재 대상: 직원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 과징금 1억3300만원 및 과태료 1650만원 부과 - 기관주의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선정 -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 비고·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기관주의’와 과징금 3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직접장이 신임 보험설계사의 실적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자 6명의 보험계약건 38건에 대해 82회에 걸쳐 1470만 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2014년 181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 16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지희 기자 jhsseo@

땅값 올라 신난 제주은행 대출실적 증가율 전국 1위

제주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실적 증가율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금 평균잔액은 122억7900만 원으로, 전년 112억5100만 원보다 10억2800만 원(9.14%) 늘었다. 직원 한 명당 평균 10억 원 이상을 대출로 판매한 셈이다. 1인당 대출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10억 원을 돌파한 것은 2003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내 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116조7000억 원)로 늘어난 가계부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6000억 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

었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28조4000억 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9000억 원으로 한 달 동안 4조8000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 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실적 증가는 집값 상승과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은행은 국책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가운데 직원 1인당 대출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제주지역 아파트값은 2014년 8월 중순 이후 87주 동안 오름세를 유지했다.

제주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금은 2014년 60억1400만 원에서 지난해 72억1800만 원으로 1년 만에 20.0%(12억400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원화 대출금은 1조8787억 원이 증가해 전년 증가액(9332억 원)의 2배에 달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서울시 희망장려금
1년간 매월 1만원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2016. 3. 2. 이후 가입자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동부대사 유준상

노란우산공제가 대한민국 사장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절세혜택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최고 125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납입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7일 우 2년간)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 2016. 1. 1일 이후 가입한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App Store 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스마트폰 빅3 ‘전략폰’ 가을 대결 승자는?

애플 ‘아이폰7 시리즈’ 9월 공개행사 앞두고
삼성 ‘갤노트7’ 내달 2일 언팩... 지난해보다 앞당겨
LG도 V10 후속 ‘V20’ 9월 조기출시 맞대응 전망

올 하반기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 스마트폰 ‘빅3’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 선점을 위한 불꽃경쟁을 펼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흥행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애플보다 한 달가량 이른 8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LG전자도 지난해 10월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V10’의 후속작인 ‘V20’의 출시일을 한 달가량 앞당길 것으로 전자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다음 달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비롯해 영국

런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선보인다는 내용의 행사 초대장을 발송했다. 이번 언팩행사는 전작인 갤럭시노트5가 지난해 8월 13일 공개됐던 것에 비해 열흘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출시는 언팩 행사 1주일여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갤럭시노트는 지난 3월 출시된 갤럭시S7과의 일관성을 위해 숫자 6을 건너뛰고 갤럭시노트7으로 제품명이 최종 결정됐다. S시리즈와 노트시리즈 숫자를 통일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판

매 시너지를 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갤럭시노트7은 노트시리즈의 상징인 ‘S펜’ 기능 강화, 홍채인식기능 적용이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매년 언팩 초대장에 신제품의 특징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담은 만큼 다음 달 공개되는 갤럭시노트7은 S펜 활용성이 한층 확대되고 홍채인식 기능으로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 관측이다. 애플은 매년 9월 자체 행사를 통해 새 아이폰 시리즈를 선보여왔다. 올해는 ‘아이폰7’으로 소비자를 공략한다. 아이폰7은 3.5mm에 불과한 얇은 두께에 절연선과 이어폰잭까지 없앤 단순한 디자인이 강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5.5인치 제품인 ‘아이폰7플러스’에는 1600만 화소의 듀얼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배터리 용량이 늘어

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아이폰7은 전작보다 14% 정도 늘어난 1960mAh에 이르는 배터리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측은 출시일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분위기지만 V10 후속작 V20이 9월경 출시될 것이라 업계의 관측이다. 9월에 V10 후속작을 출시하게 될 경우 아이폰7과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하고 갤럭시노트7과도 격전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G5’가 갤럭시S7보다 늦게 출시된 점, 공개일과 출시일의 간격이 길어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평을 받은 만큼 V20의 출시일은 전략적으로 접근해 비슷한 시기에 출시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V20과 함께 화이트 카드 방식의 LG페이도 선보이며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유현 기자 yhssoo@

올해 ‘수주 제로’ 삼성重工 3조 해양플랜트 따낸다

伊 LNG생산설비 단독 협상
사실상 수주 10월 중 본계약

올해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던 삼성중공업이 3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해양플랜트 사업을 사실상 수주하고 마무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탈리아 국영에너지 기업인 ENI사가 지난해 6월 발주한 부유식 LNG생산설비(FLNG) 입찰에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다. 컨소시엄은 프랑스 테크니프(Technip), 일본 JGC로 구성됐다. FLNG는 해상에 계류하면서 천연가스의 생산과 처리, 하역을 모두 처리하는 선박형 해양설비다. 발주한 FLNG는 연산 약 300만 톤 규모다. 이번 사업 규모는 총 54억 달러(약 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규모는 25억 달러(약 2조8000억 원) 수준이다. ENI사가 개발하는 모잠비크 동쪽 해상 4구역의 천연가스 예상 매장량은 약 85조 입방피트다. 4구역 지분의 70%는

ENI의 자회사인 ENI이스트아프리카가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한국가스공사, 포르투갈 에너지회사인 GALP, 모잠비크 국영석유회사인 ENH가 각각 10%씩 갖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입찰에는 조선 ‘빅3’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각각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올해 1분기부터 ENI 측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단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사실상 이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면 맞다. 10월께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지구계획에서 올해 수주 목표액을 53억 달러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을 최종 수주하면 목표액의 절반 가까이를 채우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에 해양플랜트 납기 지연으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원가분석 등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입찰에 들어갔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수주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LG 배터리, 우주 간다 美 NASA 탐사복에 공급

LG화학이 생산하는 배터리가 육(陸)·해(海)·공(空)을 넘어 우주까지 진출한다. LG화학은 최근 NASA(미국항공우주국)의 우주 탐사용 우주복에 리튬이온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화학은 올해 하반기부터 NASA에 신규 개발된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며, NASA는 해당 배터리를 우주복에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LG화학이 NASA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LG화학의 차별화된 소형 전자 기술력이 접목돼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항공·우주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은아연배터리보다 수명은 약 5배 길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LG화학은 NASA가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의 배터리 성능 구현을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강화분리막 기술 등을 적용해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을 코팅해 열적, 기계적 강도를 높여 내부단락을 방지하는 기술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안전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이웅범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항공·우주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NASA의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해 LG화학의 배터리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향후 NASA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다양한 항공·우주 기기에 LG화학 배터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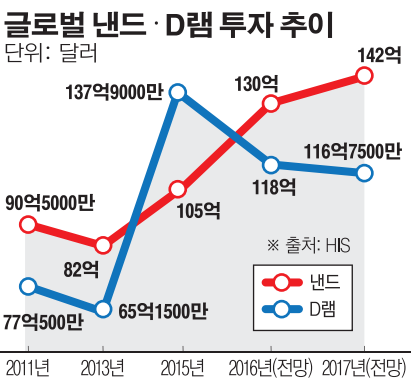
글로벌 ‘낸드 투자’ D램 뛰어넘는다

올해 130억 달러 전망... SSD 수요 증가 힘입어 3년 만에 추월

올해 메모리반도체 낸드플래시 투자금액이 3년 만에 D램을 넘어설 전망이다. 수요둔화와 가격하락세가 겹친 D램 대신 SSD(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수요에 힘입은 낸드가 반도체 시장 베틀목으로 부상하면서다. 18일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낸드 투자금액은 130억 달러, D램은 118억 달러가 예상된다. 2011~2013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통상 D램 투자 규모가 낸드를 앞질렀지만 3년 만에 낸드가 D램 투자 규모를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2017년에도 낸드 투자금액은 142억 달러로 추정. 투자 집중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낸드 시장 경쟁은 삼성전자가 주도하

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전년(11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37억 달러를 낸드에 투자한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30억 달러·35억 달러·40억 달러) 투자 규모를 꾸준히 늘렸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3차원 낸드 ‘V낸드’를 통해 기술 차별화를 이뤘다. 삼성전자가 V낸드로 낸드 시장을 선점하면서 도시바와 마이크론, 인텔, SK하이닉스 등 경쟁사들도 3차원 낸드 경쟁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낸드 수요 증가는 스마트폰 사양이 고급화되고 PC의 SSD 채용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용뿐 아니라 기업용(서버·스토리지 등)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3차원 낸드를



중심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IHS에 따르면 기업용 메모리 시장에서 지난해 10% 수준에 불과했던 3차원 낸드 기반 SSD 비중(수량기준)은 올해 40%가 예상되고 2019년 8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소비자용 시장 비중도 올해 18%, 2018년에는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영 기자 gutiy@

캐딜락, 퍼스트 클래스 세단 ‘CT6’ 출시



캐딜락이 대형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캐딜락 브랜드의 위상을 대변할 플래그십 세단 ‘CT6’을 1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개했다. ‘CT6’은 첨단 신소재와 새 아이테크를 바탕으로 고강도 경량 차체를 구현하고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했다. 6기통 3.6ℓ 엔진을 기반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퍼포먼스가 강점이다. ‘CT6’은 8월부터 판매된다. 사진제공 GM코리아

할리스커피, 매각 본격화... 내달 예비 입찰

국내 동종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IMM PE가 매물로 내놓은 할리스커피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도이체방크는 할리스커피 예비입찰을 다음 달 중순께 추진하기로 하고 국내외 전략적투자자(STI)와

PEF 등에 티저레터(투자안내문)를 발송했다. 티저레터를 받아간 잠재 인수 후보는 대상그룹과 글로벌 PEF인 칼라일(Carlyle), 중국계 FI 등 국내외 투자자 30여 곳에 달한다. 도이체방크는 조만간 잠재 인수 후보 10여 곳에 운영업체 할리스F&B의 설명

주관사 도이체방크
30개사에 티저레터

자료를 보낼 예정이다. 도이체방크 측은 예비입찰에서 5곳 정도의 국내외 적격 인수후보(쇼트리스트)를 걸러내 예비심사를 하고서 9월 말 본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은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IMM PE가 특수목적

법인(SPO) 크라운 유한회사를 통해 보유 한 할리스F&B 지분과 경영권이다. IMM PE는 2013년 450억 원을 들여 할리스F&B를 인수하고서 추가로 370억 원을 투자해 지분 91.82%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할리스커피의 EBITDA(상각전 영업이익)가 200억 원을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매각가는 최소 11배 수준인 22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애 기자 isa@

한컴 “올 1000억 매출 중 15%는 해외서”

김상철 회장, 제주서 미래전략 발표

한글과컴퓨터가 올해 매출액 달성 목표를 1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특히 매출의 15%인 150억 원은 해외에서 벌어들일 계획이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은 15일 제주시 롯데시티호텔에서 미래전략 발표행사를 갖고 사업 현황과 신사업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회장을 비롯, 이원필 한컴 대표 등 회사의 수장이 모두 참석했다. 한컴은 오피스와 임베디드, 보안, 모바일포렌식 등 그룹 내 종합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의 인수·합병(M&A), 합작법인 설립, 컨소시엄 구성,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 출시한 ‘한컴오피스 네오’가 국내·외에서 MS오피스의 대체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 등 국내 도입 성과와 함께 글로벌 전략



15일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김상철 한컴과 컴퓨터 회장이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글과컴퓨터

도 함께 소개했다. 한컴은 정부와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화 전략과 솔루션의 결합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전략으로 중동, 남미, 인도, 러시아, 중국 등 해외 5대 거점 지역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세계 오피스 시장 5% 확보라는 목표가 결코 요원한 얘기가 아님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신공항 수혜지... 지역 부동산 ‘들쭉’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아파트값 지난해보다 29.4% 급등
‘김해 확장’ 부산 강서 명지지구 분양권 수천만원 프리미엄
영남권 신공항 무산된 대구는 ‘통합 이전’ 소식에도 잠잠

전국에 신공항 바람이 불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해 최근 신공항이 확정된 부산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제주도 평균 아파트가격은 3.3㎡당 777만 원으로 지난해(600만 원) 대비 29.4%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역시 제주도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 대비 25.67% 오르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광주와 대구가 각각 15.42%,

14.18% 오르며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지역별로 제주 제주시(26.62%)와 제주 서귀포시(20.62%)가 20% 넘는 변동률을 나타냈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개발 기대감을 높이며 주변 땅값이 3배가량 올랐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이 공급과잉 우려와 지방 대출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시장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7월 첫째 주 집값이 0.28% 급등했다.

이처럼 신공항 개발 호재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리며 땅값과 집값이 치솟는 등 개발 후폭풍이 거세졌다.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7/18 (월)	접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국민임대A16-2 B/L) 2.3순위 월평균소득50%이하자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국민임대A16-3 B/L) 2.3순위 월평균소득50%이하자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국민임대A-22 B/L) 2.3순위 월평균소득50%이하자
	계약	경기	고양시	항동동	고양항동리슈빌(B-1 B/L) (~7/20)
7/19 (화)	접수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명지(공공분양B-1 B/L) (~7/20)
		충남	천안시	영성동	천안영성펜타폴리스25 1순위
		발표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계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7/21)
7/20 (수)	접수	경기	하남시	미사동	미사강변호반씨티플레이스(C-2 B/L) (~7/21)
		경기	하남시	신장동	하남U-CITY대명루트 (~7/21)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군포송정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B-2 B/L) 1순위
	발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호반씨티플레이스(C-1 B/L) 1순위
7/21 (목)	접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호반씨티플레이스(C-2 B/L) 1순위
		경기	고양시	항동동	고양항동호반베리디움(B-4 B/L)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제일풍경채에듀파크(A-96 B/L)
	오른	세종	세종시	보람동	세종3-2생활권주상복합용지(H-1 B/L)
7/22 (금)	접수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군포송정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B-2 B/L) 2순위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대방로블랜드(공공건설임대B-6 B/L) 1순위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호반씨티플레이스(C-1 B/L) 2순위
	7/23 (토)	접수	경기	안양시	호계동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유송한내들골드뷰(C-1 B/L)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힐스테이트녹양역
오른		경기	화성시	풍산동	미사강변제일풍경채(A-33 B/L)
7/24 (일)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A-15 B/L)
		대구	북구	매천동	북대구한신더휴(A-1 B/L)
		대구	북구	매천동	북대구한신더휴(A-1 B/L)
	발표	대구	북구	매천동	북대구한신더휴(A-1 B/L)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주3) 오른 단지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7월 셋째 주 전국 15개 사업장에서 총 1만2030가구가 분양된다. 1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 군포시 ‘군포송정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 447가구, 안양시 ‘평촌더샵아파트’

1174가구, 평택시 ‘평택지체역문문국모닝힐마스터’ 2803가구 등 총 1만443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동래구 ‘운전동한진스카이뷰1차’ 141가구 등 1587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과거 2010년 인천국제공항 역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가 이뤄지면 3여 년간 영종도가 편입한 인천 중구 한 해 평균 지가상승률은 40%대에 육박했다. 이는 당시 전국 평균 16%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올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영남권 신공항’ 역시 부산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인근 집값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을 사이에 둔 부산시 명지국제신도시와 사상구 등이 부동산 수혜를 입었다.

특히 강서구 명지지구는 서부산권 최대 규모 신도시로 계획돼 있는 데다 김해공항 확장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이 피해가 크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강서구 M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에 웃돈이 7000만~8000만 원가량 붙었다”며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개발호재가 발효되면 서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구지역은 최근 영남신공항이 좌절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민간공항과 K2공군기지를 통합 이전하라고 지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새 공항 부지 선정이 1~2개월 내 확정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지만 말이다.

대구 동구 지정동 주변 공인중개사는 “문의전화서 오기는 하지만 매대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아무래도 영남권 신공항이 좌절되면서 공항 호재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 보니 공항이전 발표 이후로 매물을 가져들이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아일랜드캐슬’이 움직인 경매낙찰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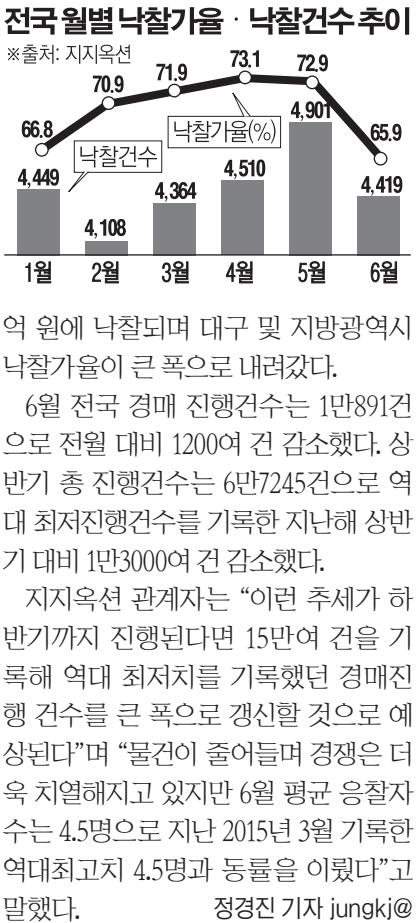
감정가 대비 17% 441억에... 6월 65.9%로 하락

수도권 인근 2600억 원대 경매물건이 감정이 대비 17%대에 낙찰되면서 전체 경매 통계가 하락했다.

15일 법원경매전문업계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6.7% 낮아진 65.9%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1월 64.6%를 기록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수준이다. 하지만 경매 낙찰가율의 하락이 아닌 일부 물건이 저가 낙찰되면서 전체 경매 통계가 하락했다.

실제 감정이 2600억 원대의 속박 위더파크 리조트인 아일랜드캐슬의 낙찰가는 441억 원에 이뤄졌다. 이는 감정이 대비 17%에 해당한다. 이 같은 저가 낙찰이 전국 낙찰가율은 10%p가량 낮추면서 전국 경매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해당 물건을 제외할 경우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75.3%로 전월 대비 0.6%p 상승한다. 특히 최근 들어 경매 진행 물건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형 물건의 낙찰가율 감소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대구 내 감정이 1200억 원의 대형판매시설이 500



정부가 키우겠다는 펀드·리츠

부동산시장 흔들는 큰손 될까

최영진 대가자의 현안진단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주요 구매 세력은 개인과 법인이었다. 일반 개인은 주택 구매 고객이고 법인은 사육용 건물이나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개인과 법당을 비롯한 상업용 건물을 사고팔기도 한다. 하지만 근래 들어 부동산 가격이 비싸져 개인의 자금력에 한계가 왔다.

법인의 자금력도 옛날 같지 않다. 설령 여유가 있더라도 부동산에 잠가 놓지 않는다. 과거처럼 부동산 값이 팍팍 올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소리다.

때문에 요즘 거래되는 대형 부동산은 대개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가 주인이다. 3~5년 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놓으면 다른 펀드가 사들이는 시장 구조다. 펀드와 펀드 간의 거래가 많아졌다. 이제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 국토교통부가 리츠에 대한 공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반 개미군단이 리츠와 펀드에 투자하는 길이 극히 제한적이다. 절차가 까다로워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펀드나 리츠의 공모 상품을 활성화할 경우 시중의 유동자금이 이쪽으로 대거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초저금리 시대에 이보다 좋은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게다가 노후가 많은 자산운용사가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형태여서 안정적인 임대료 배당 수익이 보장된다.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펀드와 리츠 설정 규모는 펀드 40조 원, 리츠 18조 원 등 총 58조 원 정도다.

리츠·펀드가 활성화되면 5000억 원대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매입 자금이 풍성하면 그만큼 거래도 많아질 것이라는 예가다. 양질의 물건은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그동안 관심을 못 끌었던 부동산이 각광을 받을지 모른다.

뉴스테이 같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주택임대시장은 점차 확대될 확률이 높다. 공급이 계속 늘어나 어찌 보면 뉴스테이 공급과잉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매입 경쟁으로 시장 분위기는 가격 상승 모드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서로 사려고 덤비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투자 수익에 비해 비싼 값에 사게 되면 임대료 인상을 통해 적정 수익률을 맞추려 한다.

영터리 자산운용사나 리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리츠 분야가 걱정이다. 리츠는 한시적인 회사여서 실제 주인이 없다. 주인 없는 회사는 아무래도 앞날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살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

펀드·리츠 자금 조성 문제보다 누가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운용사에 대한 엄격한 감독 시스템을 갖춰 놓아야 공모시장이 활성화될 듯 싶다.

choibak141@



일반인 투자자 참여 문턱 낮아져
시중 유동자금 대거 흘러들 전망
상업용 부동산 시장 확대 기대감
한편선 “가격 올려 시장 혼탁” 우려

장기불황 · 저성장 · 저금리 시대, “당신에게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월급쟁이, 노후 걱정엔 잠 못 이루는 중년들을 위하여



배우자 대신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주는 시스템 만들기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너바나 지음 | 256쪽

투자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

부동산 고수들의 강력 추천

1년 적금 모아 집 1채씩, 10년만 투자하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인생 역전의 월급쟁이 부자 비결



대한민국 부동산 고수들이 먼저 읽고 실천한 바로 ‘그 책’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백인기 지음 | 252쪽

투자 분야 주요서점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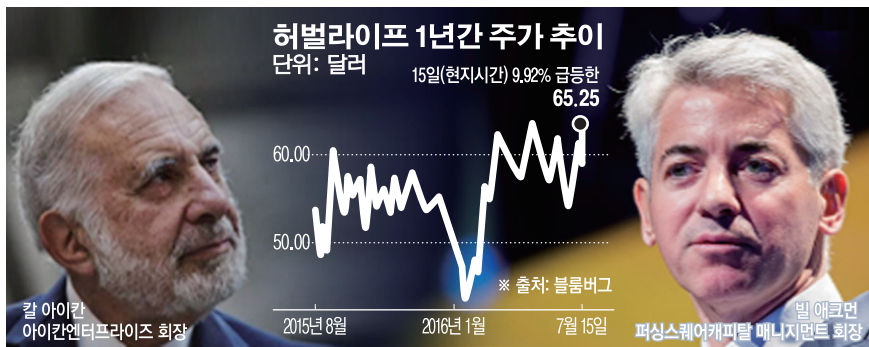
(노후를 위해 집을 저축하라) 전면 개정판

부동산투자서 시장을 역주행하는 투자계의 고전
대한민국 서민이, 소액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美 FTC “허벌라이프, 다단계 사기 업체 아니다” 2년만에 결론

‘월가 앙숙’ 칼 아이칸·빌 애크먼 희비

애크먼, 불법 다단계 주장
2012년 10억달러 공매도
아이칸 “경영 문제없다” 반박
주식 대거 매집에 4배 평균
FTC 판결 이후 주가 10% ↑



미국 건강보조식품업체 허벌라이프를 둘러싼 빌 애크먼과 칼 아이칸의 자존심을 건 2년간의 공방이 아이칸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5일(현지시간) 허벌라이프의 사업 구조에 대한 2년간의 조사 끝에 ‘다단계 사기 업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다단계 사기 의혹을 살 수 있는 일부 사업 관행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안전 기금 차원에서 2억 달러를 FTC에 내기로 합의했다. 다단계 사기 업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워지게 된 허벌라이프 주가는 이날 고공행진했다. 이날 회사 주가는 장중 18% 폭등하며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장 후반에

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10% 가까이 급등 마감했다.

이번 판결로 2012년 허벌라이프가 다단계 업체라며 공매도로 칼날을 겨눴던 애크먼과 이를 반박했던 아이칸, 두 명의 월가 거물의 희비는 엇갈리게 됐다.

애크먼과 아이칸은 월가에서 앙숙 관계로 유명하다. 이들의 불화가 격화된 계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말 애크먼은 허벌라이프가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회사라며 10억 달러가 넘는 주식을 공매도했다. 과거 부동산업계 홀우드리얼티 자본 매각 차익 배분으로 신경전을 벌인 이후 애크먼을 버리고 있던 아이칸은 2013년 1월 CNBC의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허벌라

이프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애크먼과 30분간 공방을 벌였다. 아이칸은 그 후 허벌라이프 주식을 대거 매집했다. 그러나 애크먼이 공매도에 베푼한 후 허벌라이프 주가는 4배 가까이 뛰었다.

허벌라이프 사업구조를 놓고 월가에서 내로라하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맞붙자 미국 대통령 직속의 FTC가 2014년 초 조사에 착수했고 이날 판결로 두 사람의 날 선 공방은 아이칸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현재 아이칸은 허벌라이프 자본 18.3%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허벌라이프는 아이칸이 이끄는 아이칸엔터프라이즈가 최대 확보 가능 지분을 25%에서 34.99%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NN머니는 물론 허벌라이프의 사업구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허벌라이프는 현재 90여 개국에서 수백만에 달하는 독립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 이를 통해 건강보조제를 판매하고 있다. 허벌라이프가 채택한 다단계 판매방식은 판매업자가 단순히 자신의 판매행위로 수입을 얻는 것을 넘어 자신이 채용한 사람들이 올린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러한 사업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구조에서 소수의 판매자만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대해 애디스 라미레스 FTC 회장은 성명에서 “이날 결론은 허벌라이프 판매자가 몇 명의 판매자를 끌어들이는지가 아닌, 물건 판매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아이칸은 성명을 통해 “허벌라이프 경영진에 최고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애크먼은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허벌라이프가 사업 구조 개편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日 친환경·자율주행 기술개발 올인

도요타 1조800억엔 등 7개사 올해 R&D비용 2조8120억엔

일본 자동차 업계의 올해 연구·개발(R&D) 비용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니혼게이지아신문은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7개사의 올해 R&D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2.8% 늘어난 2조8120억 엔(약 30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대로라면 일본 자동차 업계의 R&D 비용은 7년 연속 전년 실적을 웃돌게 된다.

이들 자동차 업체는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차 기술 개발에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추가하면서 R&D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7개사 중 도요타와 닛산, 스즈키, 마쓰다, 후지중공업 등 5개사의 R&D 비용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요타의 R&D 비용은 산하 다이하쓰공업 등 자회사를 포함해 전년보다 2.3% 증가한 1조800억 엔이 될 전망이다.

도요타는 친환경차의 핵심인 연료전지차(FCV)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

일본 주요 자동차업체의 연구개발비		
업체	올해 전망(억엔)	전년비 증감률(%)
도요타	1조800	2.30
닛산	5600	5.30
혼다	6900	-4.10
스즈키	1400	6.90
마쓰다	1250	7.20
후지중공업	1200	17.20
미쓰비시	970	23.30
계	2조8120	2.80

량(PHV)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에 도요타는 10년 전에 비해 R&D 비용을 약 20% 늘리는 한편 설비 투자는 1조3500억 엔으로 전년보다 약 10% 줄였다.

닛산은 전기자동차(EV)의 과제인 고속 거리를 늘리기 위해 바이오 연료로 발전하는 자동차 연료전지 개발 등에 주력, R&D 비용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혼다는 신차 개발 시기를 맞아 R&D 비용을 4.1% 줄였지만, 올 가을께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연구 거점을 도쿄 중심의 도심에 설치하고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美 공화당 전당대회 안전비용만 5000만달러

세계 곳곳 테러·폭력사태 가능성
FBI·정부요원 3000명 이상 투입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축제와 화합의 장이었던 전당대회가 테러와 폭력 사태 발발 우려에 경계가 삼엄하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진행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미국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당 대선 후보에 공식 지명된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테러로 예전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클리블랜드 시 당국의 전당대회 관련 비용 중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안보 관련 예산은 5000만 달러(약 568억 원)에 이

른다.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 배치되는 경비 인력도 상당하다. 우선 미국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과 연방수사국(FBI), 비밀경호국(SS), 연방비상관리국(FEMA) 소속 요원 등 총 3000명이 배치된다. 또한 시내 주요 도로에는 약 50cm 높이의 콘크리트 장애물이 설치된다. 여기에 1500명 이상의 중무장한 경찰과 주방위군은 물론 미군까지 합류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삼엄한 경계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테러 때문이다. 캘빈 윌리엄스 클리블랜드 시 경찰 국장은 이날 CBS뉴스에 출연해 “(프랑스) 니스에서와 같은 일이 클리블랜드에서 시도됐을 때 곧바로 격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지지파와 반대파 간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는 전당대회를 중단하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대회가 열리는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트럼프는 전당대회를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거리행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다.

클리블랜드/로이터연합뉴스

中 바이두도 ‘파라마운트’ 인수 퇴짜

완다그룹보다 앞서 진출 시도

레드스톤 일가 반대에 손떼

중국 주요 기업들이 영화의 본고장인 미국 할리우드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주 중국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다렌완다그룹이 미국 영화제작사 파라마운트 인수를 위해 모회사 비아콤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중국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바이두도 파라마운트 인수를 추진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5월 바이두가 중국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기업인 DMG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와 함께 파라마운트 주식 인수를 추진했으나 모회사인 비아콤 대주주 쉘니 레드스톤 일가의 반대로 손을 뗐

다고 말했다.

영화 사업에서 공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다렌완다그룹도 파라마운트 주식 49%를 인수하기 위해 비아콤과 협의했으나, 마찬가지로 레드스톤 일가의 반대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가에서는 파라마운트의 자산 가치를 80억~1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으나 다렌완다가 5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퇴짜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의 영화 제작 야심에 비아콤의 집안 싸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쉘니 레드스톤과 그의 장녀 사리 레드스톤이 손잡고 도만 CEO를 내쫓기로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올해로 93세인 쉘니의 판단 능력이 정상인지 여부인데, 도만 CEO는 사리가 판단 능력이 없는 쉘니를 부추겨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www.119medical.co.kr

즐거움 치과
Dental Clinic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낳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T.032-514-00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부평동, 대한빌딩 7,8층)

〈두산그룹〉

박지원 부회장 “연은 역풍 불 때 가장 높이 난다”

스코틀랜드서 ‘비즈니스 포럼’
“새돌파구 찾는 게 리더의 숙명”
글로벌기업 CEO 한자리 모여
세계경제·인프라산업 영향 논의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순풍이 아닌 역풍이 불어올 때 연은 가장 높이 날 수 있다”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비즈니스 리더들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15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2016 두산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곳곳에 리스크 요인이 많은 지금의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데 이번 포럼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2년 시작한 두산의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은 세계적인 경제 석학과 기업 최고 경영자(CEO) 등이 모여 글로벌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인프라 산업의 핵심 트렌드를 논의하는 자리다.



15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2016 두산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서 박지원(가운데) 두산그룹 부회장이 윌리엄 헤이그(오른쪽) 전 영국 외무장관의 특별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그룹

이번 포럼에는 윌리엄 헤이그 전 영국 외무장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후안 미란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대니 알렉산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아미타 칸트 인도 국가 혁신기구(NITI) 최고경영자(CEO·전 인

도 산업통상부 차관), 펠리페 칼데론 글로벌 기후변화경제위원회 의장(전 멕시코 대통령), 아룬 마조달 전 미국 에너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전망,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와 인프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세션인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금 세계 경제는 수요 부족에 따른 병적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정치력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며 “정치력을 통한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경제 성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IMF 국장은 “아시아는 수출 중심 경제이므로 자유무역 기조가 제대로 지켜져야 지속 성장이 이뤄질 것이고 앞으로는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정책 전환도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후안 미란다 ADB 부총재와 대니 알렉산더 AIIB 부총재가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경제 불균형의 해결책으로서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시하고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펠리페 칼데론 의장과 아룬 마조달 전 차관이 연사로 나서서 파괴협약에 따른 신기후 변화 체제의 출범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안철우 기자 acw@

최이진 홀인원 한방에 ‘2억 BMW’ 대박

BMW레이디스챔피언십 조건부 시드권 출전...올 상금 10배 훌쩍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년 차 최이진(21·삼천리)이 홀인원 행운으로 2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았다.

최이진은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앤리조트 하늘코스에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12억 원, 우승상금 3억 원) 최종일 경기 16번홀(파3·165야드)에서 홀인원을 기록, 부상으로 1억9200만 원 상당의 BMW 750Li xDrive 승용차를 받았다.

최이진이 이번 시즌 벌어들인 상금 1298만 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최이진은 16번홀에서 홀인원을 한 뒤 언더파였으나 17번홀(파4)에서 트리플 보기를 범해 1오버파 289타를 쳐 공동 20위에 올랐다. 지난 2014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최이진은 상금 랭킹 11위에 그쳐 작년에는 2부투어에서 뛰었고 올해는 조건부 시드권으로 이번이 시즌 10번째 출전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첫 홀인원은 최혜용(26·BNK금융그룹)이 기록했다. 최혜용은 16일 3라운드 4번홀(파3·148m)에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에서 열린 K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6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최이진이 부상인 BMW 750Li xDrive 프레스티지 승용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BMW그룹 코리아

서 천 불이 홀을 파고들며 에이스가 됐다. 대회 첫 홀인원은 지난 2015년 대회 2라운드 4번 홀에서 남소연(25·위트윈)이 기록했다. 이어 최종 라운드 12번 홀에서 서하경(23·크리스파션·공필프웨어)이 대회 두번째 홀인원을 기록하며 BMW i8을 받아 큰 화제가 됐다.

안성천 골프대기자 golfahn58@

무렵 70주년 기념음악회·지휘봉 잡은 김마에



우리나라 7만여 무역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무역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2년 앞선 1946년 7월 31일 무역인 105명이 설립한 순수 민간 경제단체로 지난 70년간 한국무역의 성장과 함께해 왔다. 무역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이어 강남삼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기념음악회도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이 특별지휘자로 나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해 관람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수출 한국을 이끌어온 무역에게 대표, 강남구민과 임직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한국무역협회

‘비나리는 호남선’ 원로가수 손인호씨 별세

‘비 나리는 호남선’을 부른 원로가수 손인호(본명 손호찬) 씨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유족에 따르면 손 씨는 간경화 말기로 투병 도중 이날 오전 6시 39분 강남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간경화와 다른 지방 탓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27년 평안북도 창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비 나리는 호남선’, ‘해운대 엘레지’, ‘한 많은 대동강’ 등 1950~196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로 사랑을 받았다. 평양에서 열린 노래자랑대회인 ‘관서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한 손 씨는 심사위원의 권유로 월남했고 KPK악단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윤부길 씨가 이끄는 ‘부길부길쇼단’으로 옮겨졌지만 한국전쟁이 터지자 군 예대에 들어가 군번 없는 용사로 전쟁터를 누렸다.

전쟁이 끝난 뒤 손 씨는 작곡가 박시



춘 씨와의 인연으로 1954년 ‘나는 울었네’와 ‘슬 쉬는 거리’를 발표했으며, 2년 뒤인 1956년 박춘석 씨가 작곡한 ‘비 나리는 호남선’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의 원래 직업은 영화 녹음 기사였다. 가수로 150여 곡을 발표하면서 도약 200여 편 이상의 영화 녹음 작업을 했다. ‘돌아오지 않는 해방’, ‘로맨스 빠빠’, ‘빨간 마후라’, ‘미워도 다시 한번’ 등이 손 씨가 녹음 작업을 한 영화다. 그는 대중상 녹음상을 일곱 차례 수상한 바 있다.

손 씨의 유족으로는 부인 이선자 씨와 3남 1녀가 있으며, 빈소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장지는 경기도 동화 경묘공원이다.

이재영 기자 ihy0403@

부음

▲김용준(순복음도봉교회 목사)·옹학현(전 세대 총장)·옹민(국민대 교수)·옹성(전 두산 인프라코어 대표이사)씨 부친상 =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2227-7550

▲노성철(삼우금융 회장)·성현(미국 거주)·성훈(연세암병원장)·성민(미국 거주)씨 부친상 =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2-2227-7556

▲김동호(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제4행정실장)·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씨 부친상 = 17일, 강원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33-254-5611

▲정진성(대전시교육청 공보관실 주무관)씨 장모상 = 17일, 충남 서천 침사령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8시, 041-956-4440

▲임대근(문화방송 부장)·전 배틀린 특파원)씨 동생상 =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52

▲박용길(전 KNN 부회장)씨 별세, 박보

‘포켓몬 고’ 성공 뒤에 한국계 디자이너 있었다

나이앤틱랩스 황정목씨 주목...포켓몬 개성 살리며 증강현실 몰입도 높여

구글 홈페이지 로고도 디자인

‘포켓몬 고(Pokemon GO)’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숨은 주역으로 개발사 나이앤틱랩스의 한국계 디자이너 황정목(미국명 데니스 황) 기술 총괄이사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디지털 대중문화 전문가인 버지니아 해퍼넌은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포켓몬 고는 사회적 실험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데니스 황 나이앤틱랩스 기술 총괄이사를 조명했다.

해퍼넌은 황 총괄이사의 상세한 이력과 함께 CNN이 그를 “워드(글자 디자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라고 언급한 대목을 소개했다. 특히 “포켓몬 고의 성공 뒤에는 데니스 황과



지난 2009년 5월 ‘서울다지털포럼 2009’ 행사에서 ‘구글 두들’로 유명한 데니스 황 당시 구글 총괄 엘마스터가 ‘예술로서의 낙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같은 예술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포켓몬 고’ 디자인 총괄을 맡은 황 총괄이사는 포켓몬 캐릭터의 개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증강현실(AR)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홈페이지 로고도 그가 디자인한 것이다. CNN은 황 총괄이사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잘 안 알려진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라고 소개했다.

황 총괄이사는 1998년 구글에 입사해 줄곧 디자이너로 일했다. 기념일마다 특이하게 디자인한 구글 로고 ‘구글 두들(낙서)’도 그의 작품이다. 황 총괄이사는 구글 지도 개발을 주도한 존 행키 전 구글 부사장이 사내 벤처로 설립한 ‘인그레스 개발팀’에 2011년 합류했다. 이 팀이 지난해 나이앤틱랩스라는 사명으로 독립하면서 그도 자리를 옮겼다.

이달 6일 서비스를 시작한 포켓몬 고의 열풍은 미국, 호주, 영국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식 출시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설치파일(APK)을 통해 포켓몬 고를 즐기고 있어, 업계에서는 사용자가 이미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세븐일레븐 동반성장 간담회 중소 파트너사와 협력 다져

세븐일레븐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명동 L7호텔에서 37개 중소 파트너사 대표와 임직원, 세븐일레븐 관계자 등 60여 명을 초대해 동반성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세븐일레븐은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소개하고 중소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파트너사의 다양한 건의 사항과



에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븐일레븐은 협력사를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 파트너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 결제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산업혁신운동 3.0 참여를 통해 경영 컨설팅 및 설비 지원도 하고 있다.

파트너사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팀장 조충현 △고용정책실 자산운용팀장 여성철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의도 △통일정책실장 김남중 △남북회담본부장 한기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소장 임병철 △정세분석국장 이무일 △교류협력국장 강종석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행정인사팀장 박재훈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상임위원 신근호 △행정심판국장 권근상

◆조달청 ○과장급 전보 △충북지방조달청장 이기현 ○과장급 신규 임용(경력개발형 직위) △대변인 김봉조

◆방위사업청 ○과장급 임용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 고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 허진호 전승철

◆산업은행 ○본부장 △해양산업금융본부 이동혜 ○부·실장 △수신기획부 유병수 △무역금융실 강경완 △업무지원부 도치영 △신선탁실 정호건 △검사부 주광열 ○지점장 △강남 이동기 △제주 박상문 △가산 이양우 △마포 이영균 △부평 전상준 △송도 민철기 △시화 신배근 △인천 이동우 △금정 김명수 △창원 이영권 △포항 변석만 △금남로 흥권석 △전주 김학봉 △충주 이경종 △미안마 양곤사무소 이창하

◆국민연금공단 ○본부 부서장 전보 △가입추진실장 이래광 △가입지원실장 김용국 △기초·연금지원실장 서영보 △은용지원실장 송호동 △정보시스템실장 우재광

△비서실장 서정대 ○지사장 전보 △강남역삼 김용환 △파주 윤기욱 △경서 김정학 △안양과천 이말용 △세대구 이훈상 △구미 이상선 △사천남해 임계홍 ○부장 전보 △인재경영실 정근식 △총무지원실 박재연 △홍보실 김성호원 △가입추진실 고광영 이만현 김미경 △가입지원실 이명호 류승훈 △기초·연금지원실 조정호 양광복 박재구 최우용 정갑수 △검사실 김승균 △강남역삼지사 최남희 △송파지사 이철희 △서초지사 박재석 △구로금천지사 한현일 △영등포지사 이석한 △용인지사 최홍배 △대전지역본부 김창식 △대구지역본부 박준석 △국제협력센터 허강은

◆예보보험공사 △여금 승진 △기획조정부장 하홍운 △인사지원부장 윤자용 ○2급 승진 △기획조정부 팀장 박인식 △인사지원부

팀장 김해중 △인사지원부 팀장 이상조 △저축은행관리부 팀장 권남진 △조사총괄부 팀장 양건승 ○3급 승진 △윤홍규 이영호 나근세 강병만 염우용 김성근 ○4급 승진 △호충대 홍충만 심재만 양지연 이은후 여승준 안효상 서하라 이영주 송성진 이재용 ○부서장급 전보 △기금관리부장 서승성 △조사총괄부장 박연서 △저축은행관리부장 이미영 △청조경영실장 유대일 △재산조사부장 양이중 △검사실장 지창우 ○부서장급 보임 △핵심사업평가TF 팀장 김경관 △기금운용실장 홍준모 △정보시스템실장 이형표 △외부 파견(파견재단) 유현우

◆열린안전생명 ○부장 승진 △체널조정

부장 손승일

◆동 의대 △동의지전교양대학장 및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장 성경규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서울 25시, 夜

제2화 그녀는 분식회계 중 ②

“원래 그런 애가 내숭 떠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일가견 정도가 아냐. 도통을 했지. 고등학교 졸업장이 마르기도 전에 시집을 갔으니까.”

“어머! 임신?”

“에이, 그래도 이해진은 안 그래. 그 애는 원래 내숭이 아니라 천성이 착하잖아. 문제는 바로 그 점이야. 왜 착하나구, 그 정도 미모면 좀 덜 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잖아.”

“나도 이해진 싫어해. 그년이 남자들 앞에서 꼬리 치는 모습만 상상해도 밥맛이 없대니까. 하지만 내숭은 아닌 거 같아. 그래서 미처 버리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도대체 어떡하면 좋지?”

“자기가 빨리 시집을 가. 그럼 그년 얼굴 안 봐도 되잖아.”

여직원들만 화장실에서, 휴게실에서, 옥상에서 이해진을 찢고 흔들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남자직원들도 갑자기 더 광채를 내는 이해진 때문에 일에 손에 잡지않았다.

부장이 차장을 불렀다. 오늘따라 광채를 내고 있는 이해진을 흘깃거리며 오늘 부서회식이 있으니 단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다.

“뒤 좋은 일 있습니까? 회식하는 건 좋지만..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멘트를 준비하느라 틈틈이 말 잘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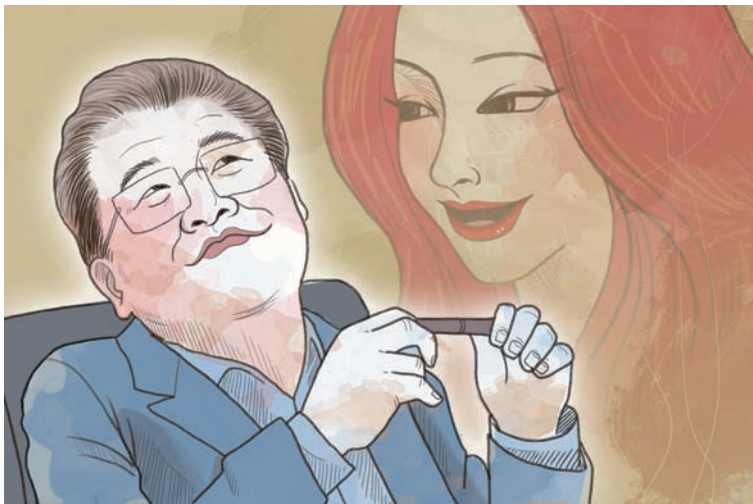
유부남 직원들도 당탈아서 축제를 앞둔 진행요원들처럼 괜히 마음이 들떠서 콧노래를 불렀다.

예외는 있다. 박 과장은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출근할 때 아내가 넥타이를 바르게 매주며 와인을 준비해 놓겠다고 말했다. 일찍 퇴근해서 분위기를 잡자는 뜻이다.

신혼 때는 일수 도장을 찍었다. 첫 애를 낳고 나서는 주간 도장을 찍었다. 둘째를 낳았을 때만 해도 월간 도장을 찍었다. 이해진을 만나고부터는 부정기적으로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 날은 아내가 결정한다.

“젠장, 지금까지 회식은 목요일에 했잖아. 월요일부터 회식하는 부서는 자금부박에 없을 거야! 술 좋아하는 부장은 2차는 햄버거고, 3차는 콜라다. 햄버거 먹고 콜라 마시지 않으면, 막걸리 마시고 안주로 땀물 마시는 것과 같다. 집에 가면 빨라야 12시다. 아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다행이다.

만약 기다리고 있다면 애! 그 뒤로는 너무 비참해서 생각하기가 싫었다. 아침부터 버리고 있을 아내를 달래주려면 온몸의 기를 쥐어짜야 한다. 적당히 술을 마시면 비아그라가 되는데, 3차



지난주 목요일 회식을 했잖습니까? 월요일부터 회식하면 직원들이..”

“다치페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부장이 판공비로 술 사겠다는데 싫다는 놈 있어?”

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이해진을 바라봤다. 오늘 회식의 콘셉트는 갑자기 더 예뻐진 이해진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는 것이다. 직속 부하가 상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차장을 바라봤다.

“대리급 이상이야 백 프로 참석을 하겠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회사보다는 제 개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도가 강하잖아요.”

“가는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오늘 회식 빠지는 놈은 연말에 보자구 해.”

유성훈딩스는 연말보너스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부장은 떠는 말이 필요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남자직원들에게 전 직원 회식은 승진보와 같았다. 전 직원 회식을 한다면 이해진은 무조건 참석이다. 옆자리에 앉아서 건배한다는 것은 연감생심이다. 이해진처럼 완벽한 여자와 한자리에 앉아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됐다.

기업을 화재가 뜨면 연타로 상한가를 친다. 개미들은 화재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다. 아니, 분석하려 들지 않는다. 화재라는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분석은 뒤로 하고 아파트 대출까지 받아서 ‘뭉치마’ 매수를 한다.

나름 머리가 좋다는 남자직원, 기회를 잡을 줄 안다고 호언장담하는 총각직원들은 출장을 핑계 삼아 피부관리실로 달려갔다. 이해진의

까지 마시고 나가면 그놈이 자꾸 딴 생각을 한다. 이른바 약하그라가 되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일단 오늘은 최소한으로 술을 적게 마시겠다는 작전을 세웠다. 술을 적게 마시고 싶다고 해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퇴근 시간 전에 편의점 가서 우유로 배를 뽕뽕하게 채워 놓아야 술이 적게 들어간다.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에 있는 숯불갈비집이다. 직원들은 부장과 차장이 앉을 중간 자리를 비워 놓고 서열대로, 친한 직원들끼리, 비슷한 주급(酒級)끼리 앉았다. 부장을 앞세워 차장이 그 뒤를 따랐다.

직원들은 반찬 간을 맞보고 있다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오늘따라 광채를 내고 있는 이해진을 흘금거리고 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자, 다들 앉지. 그리고 자금부의 마스크트 이해진 씨는 이리로 오지. 오 대리는 저쪽에 가서 앉고.”

차장이 서른세 살 먹은 오인숙 대리를 이해진 자리로 쫓았다. 오 대리는 결혼을 한 몸이다. 그래도 질투가 났다. 이진 성추행이라고 쏘아붙이고 싶은 충동을 짓누르며 이해진 옆으로 갔다.

“차장님께서 부르시잖아.”

오 대리는 생각 같아서는 얼굴을 꼬집어 비틀어주고 싶었다. 발끝으로 이해진의 엉덩이를 톡쳤다. 생고무처럼 탄력 있는 엉덩이 갑축이 발끝으로 전해진다. 같은 여자가 봐도 대단한 촉감이 다.

“부장님 한 말씀하시죠.”

차장의 말에 부장이 점잖게 일어섰다.

러시아는 지금



위 성 략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
전 주러시아대사·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브레시트를 보고 러시아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공통점과 상이점이 있고, 관련도 있다.

우선 유럽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나 영국 모두 유럽으로부터 멀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래 유럽과 대립 국면에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되던 러시아와 유럽 간의 협조 기운은 사라지고 양측의 분리는 현저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브레시트로 영국이 유럽에서 이탈했다.

다시 ‘명예로운 고립’ 선택한 영

우크라 사태 후 변곡점 맞은 러

리, 서방과 협력 시사하며 위력 과시
강대국 파워게임...한국도 영향권

흥미롭게도 이러한 현상이 유럽의 동쪽 변두리와 서쪽 변두리에서 벌어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동쪽 끝의 러시아나 서쪽 끝의 영국 모두 유럽과는 다른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 다 유럽의 멤버이고자 하면서도 유럽과 별개의, 유럽과 다른, 유럽보다 나은 무엇이고자 하는 정체 의식을 갖고 있다.

상이점도 있다. 러시아의 정체성 속에는 유럽에 대한 열등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들어 있으나, 영국의 경우는 우월감이 자리한다는 점이 다르다.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대륙에 대해 갖고 있던 명예로운 고립이라는 개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정서가 유럽연합(EU)을 떠나겠다는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명예로운 고립이라는 개념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유럽문명의 주변부이자 후발주자이면서 강대한 세력과 대단한 성취를 이룩했으므로 중심부 유럽에 대해 인정 콤플렉스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힘에 대한 자의식도 갖고 있는 이중적 심리하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브레시트가 불거진 시점도 묘하다. 우선 유럽과 러시아의 대립이 탈냉전 시기 최고조에 달한 때에 이 일이 생겼다. 마침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성에 대해 단합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유럽 내 목소리가 높고 그러한 기류의 맨 앞에 영국이 있었는데, 영국이 EU를 탈퇴한 것이다.

이제 브레시트 사태로 유럽의 단합 흐름에 타격이 가해지자 이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념상 러시아는 단합된 유럽을 버거워하고 분열된 유럽의 개별 국가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지금의 상황을 나쁘게 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러시아에 강경한 영국이 없는 유럽을 편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이 빠지고, 이완된 EU가 무역이나 자본 협력 등 실질적

유럽 밖의 영국, 유럽 외의 러시아

경제 측면에서 러시아에 득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고립과 제재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모색을 하고 있다. 일종의 타협을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러시아 특유의 기질과 정체성상 그 접근방법은 유화적이 아니라 공세적이다.

예컨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반군이 일정한 정치·군사적 위치를 점령하자 러시아는 휴전을 성립시켰으며, 반군을 통제하면서 휴전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그러면서 서방과의 타협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서방은 러시아가 크림리아 합병과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반군 부양이라는 기정사실 위에서 상황을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러시아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공세적 행보를 보였다. 시리아에 파병하고 공습을 시작한 것이다. 명분은 테러리스트 그룹에 대한 전쟁이지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군이 테러리스트 그룹만이 아닌 친미 온건 반군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명분상으로는 미국 등 서방과 협력하는 것이나 내심은 아사드를 부양하는 것이니 서방과 옹타가는 것이다. 결국 겨냥점은 서방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위력으로 보여주어 러시아와 협력하고 타협하는 것이 유익함을 각인시키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다가 시리아에서 일정한 군사적 성과를 거양되자 러시아는 전격적으로 주력 부대 철수를 발표하였다. 그럼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에 일

을 유지하도록 독려해왔다. 미국은 계속 대서양 안보 협력의 틀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활용하여 단합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NATO에는 영국이 여전히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몇 갈래 흐름들이 뭉뚱그려져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계속 연장되고 러시아 접경 지역에 대한 서방의 안보 태세는 강화되면서도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는 조금씩 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간 단절되었던 NATO와 러시아 간의 1차 대화가 열린 것이 하나의 신호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는 주목의 대상이었다. 여기서 발트 3국과 폴란드에 5000여 병력을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점증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또 NATO는 유럽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다른 한편, 바르샤바 NATO 정상회의 직후인 7월 13일에 NATO와 러시아 간의 2차 대화가 열렸다. 러시아가 바르샤바 정상회의의 결정을 해명하라고 으르렁대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모스크바에는 대화 재개에 기대를 거는 기류도 완연하다.

또 다른 타협 조점은 시리아에서도 발견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작전을 위해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의 정도를 높이는 데 합의한 것이다. 러시아의 시리아 작전에 대해 그간 미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에 비추어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13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러시아와 대사급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NATO) 사무총장. 나토와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나토의 군사적 증강 등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정한 기여를 한 기록을 남기고, 지속 작전을 할 경우 생기는 부담을 덜며, 아사드 정권 부양 작전 이 서방과의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였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전투를 하는 동안 동부 우크라이나에서는 안정세가 현저해졌다.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서방에 대해 응수타진을 한다.

그런데 서방 측이 바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접근 방식에 공격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브레시트가 있으니 러시아가 이런 접근태도를 강화할 소지도 있다. 앞으로 서방이 러시아 특유의 접근 방법에 어떻게 나올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방 측 내부에는 그간 몇 갈래 흐름이 있었다. 서방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는 러시아를 계속 대립 구도에 둘 수만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이들은 러시아와 협의하여 휴전합의도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와 발트 3국, 북유럽 국가 등 시리아와 근접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한편, 유럽보다 더욱 퓨리탄적인 정서를 가진 미국은 상대적으로 원칙적 자세를 취해왔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단합된 입장

물론 이러한 조짐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고 사태 여하에 따라 급전직할할 소지도 있다. 제재와 고립 구도하에서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공세적으로 타협을 추구하려는 러시아, 상이한 대러시아 관점을 내부에 안고 있는 유럽, 그리고 원론적인 접근을 하는 미국이 향후 어떠한 정책행로로 나아갈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국제 정치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벌이는 상위 게임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양한 현안들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가능할 수 있다. 러시아와 브레시트 같이 의외로 연계되어 있는 일이 또 없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유사한 예이다. 우리는 사드를 한·중 관계나 한·러 관계의 맥락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러시아에 이 문제는 이미 미국 및 유럽국가들과 유럽에서의 미사일 방어망 배치를 두고 벌여온 분쟁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이다. 러시아는 유사한 방어망이 아시아의 한반도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유럽에서 하던 논리와 행보로 사드에 대처하려 한다.

마침 바르샤바 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 미사일 방어망 배치 가속화가 정해졌으므로 러시아는 좀 더 자극을 받았을 수 있다. 그 여파는 사드에도 미칠 수 있다. NATO 회의를 보고 사드를 생각해야 하는 까닭이다.

BRAVO My Life

COVERSTORY 손주 병법, 꽃보다 손주로 살맛 나는 사람들

PART1. 육아 일기 쓰는 할아버지 <해파리의 육아일기> 저자 이창식

PART2. 문화가 변해도 손주 돌봄은 역시 격려와 인정이 최고 장영희 동년기자

PART3. 대한민국 조부모의 손주 병법

PART4. '초등학생 사베이' 할아버지·할머니 우리 함께 놀아요!

PART5. 신종플루는 아니었지만 되살아난 내 보물 손녀 백와섬 동년기자

PART6. 미국 할아버지·할머니의 손주 병법 남진우 뉴욕 주재기자

PART7. 일본 할아버지·할머니의 '독특한' 손주 사랑법 이태문 동경 통신원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선화보가 망한 사람

7월의 맛 닭다리 잡고, 무더위도 잡자

초복부터 말복까지를 더위와 가장 심한 때라 하여 '삼복 더위'라고 한다. 예로부터 복날이면 여름내 지친 몸과 기운을 달래기 위해 보양식을 챙겨 먹었다. 해마다 먹던 삼계탕과 백숙이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이번 복날엔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색다른 건강식과 옛 물건들이 가득한 '솔로렐'을 소개한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공병호의 독서산책

마리나 크라코프스키 '미들맨의 시대'

“1999년만 해도 미들맨이 미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퍼센트였지만 2010년 통계를 보면 34퍼센트로 늘어났다.”

미들맨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가치를 선사함으로써 이익을 거두는 사람들이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미들맨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벤처 투자가 마이크 메이플스 주니어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세상이 상호 연결됐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미들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널리스트인 마리나 크라코프스키는 ‘미들맨의 시대’(터난 출판)에서 성공한 미들맨의 특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둘째, 인증자는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파는 제품의 품질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려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평판 구축에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집행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력을 쏟고, 협력하고, 정직하게 만든다. 집행자는 거래 파트너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며, 좋은 행동에 필요한 공통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을 들 수 있다. 페이스북은 실명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함으로써 사이트의 신뢰도와 책임감을 높이는 데 성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기업 활동은 기술 혁신과 시장 효율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다.

그런데 기술 혁신과 시장 효율은 달라도 너무 다른 본질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제품과 시장, 혁신과 효율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기업이 활동이다. 상호 배타적 혁신과 효율을 순환시켜 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 혁신의 리더십을 기업이 정신이라고 정의한 이유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하고 있다. 이제 혁신과 효율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혁신은 단독 혁신에서 생태계 혁신으로 진화하고, 시장은 O2O(Online 2 Offline)시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업과 기업이 정신의 새로운 진화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은 기업 간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혁신과 효율의 결합은 이제 기업의 내부 활동을 넘어서고 있

혁신과 효율이 순환하는 4차 산업혁명

다. 인스타그램의 혁신 역량이 페이스북의 시장 효율과 결합하면서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로 평가된 것이다. 만약 인스타그램이 스스로 시장을 개척했다면 성공 여부는 불투명했다. 페이스북이 내부에서 인스타그램을 대체하는 노력을 했다면 경쟁사에 뒤질 수가 있었다. 혁신과 효율의 결합인 기업 활동이 기업 내부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는 혁신 전문기업과 시장 전문기업으로 분할되고 있다. 작은 벤처기업은 혁신 역량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효율에 각각 주력한다. 그리고 이 둘은 혁신 시장에서 결합된다. 이것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 구조다. 단일 기업이 제품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사후관리를 단독으로 이끄는 닫힌 사슬의 성장 전략은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창업 기업들의 성장 경로는 이원화되고 있다. 창업 기업의 혁신을 시장 기업에 매각하고 다시 혁신하는 연속 기업가의 길과 스스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 세계화하는 두 가지 길이다. 대체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하는 기업들은 스스로 세계화를 꾀해야 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주식 상장(IPO)을 통하여 자본을 회수한다.

그러나 이미 거대 플랫폼이 형성된 경우, 혁신을 만드는 기업들은 인수·합병(M&A) 전략으로 간다. 인스타그램과 위젯 등의 사례다. 이들은 M&A를 통해 투자 회수를 한다. 그래서 자본 시장에서는 소수의 거대 IPO와 다수의

M&A가 공존하는 투자 자금 회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M&A 시장이 더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혁신의 가치가 급속히 증가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정신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진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한국의 기업혁신 전략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내부 역량에 의한 혁신은 점진적 혁신까지만 유효했다. 이제는 와해적 혁신 시대가 되었다. 와해적 혁신의 기업 내부 추진은 성공률이 매우 낮다. 와해적 혁신은 △개방 혁신 △개방 플랫폼 △사내 벤처 이 세 가지의 적절한 조합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효율 경쟁에서 혁신 경쟁, 특히 와해적 혁신 경쟁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기업이 정신과 기업가적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존 체임버스 시스코 회장의 “이제는 모든 기업이 스타트업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와해적 혁신의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삼성이 이제 스타트업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스타트업 정신에 기반한 와해적 혁신 문화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개방과 공유, 협력과 생태계라는 용어로 정리될 수 있다. 왜 구글이 알파고의 소스코드를 개방하는가?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의 95%는 오픈소스다. 개방 협력은 더 빠르게, 더 싸게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개방과 공유의 사상 아래 다양한 개방혁신 운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혁신과 효율이 순환하는 제4차 혁명, 바로 우리의 기회다.

구매·판매자사이서새로운가치창출

성과 종류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분석했다. 이 책은 자기 일을 잘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대해 주며 최고의 조합 능력을 보여주는 미들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고 수준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미들맨이 자신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저자는 다소 중점될 수도 있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들맨의 역할에 따라 모두 6가지 미들맨을 제시한다.

첫째, 교량자는 물리적, 사회적, 시간적 거리를 좁혀 거래를 활성화한다. 교량자는 단절된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기회를 찾는 데, 각 거래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교량자 역할에서 성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저자는 이 같은 조언을 한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유명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알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걱정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뛰어난

공한다.

넷째, 위험 감수자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거래 상대를 위해 거래 변수나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위험 감수자는 외부의 위험을 포용하고 내부의 위험을 피하면서 두 위험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안내자는 성가신 일을 줄여주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객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다. 오늘의 소비자들은 과거 미들맨이 했던 일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자는 끊임없이 변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는 고객이 지나치게 탐욕적이거나 자기 홍보가 지나치다거나 대립을 일삼는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고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돕는다. 미들맨은 나와 관계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짓기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읽어볼 만한 책이다.



오늘의 인물 7월 18일 윤보선

“그가 정치인으로서 군사정권과 정변으로 맞짱을 뜬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서종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 “5·16 군사 쿠데타 당시 그의 묵인적 행동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해악을 남겼다.”(한영우 전 이화여대 이화학술원장)

정치가 윤보선(1897.8.26~1990.7.18)은 이렇게 평가가 엇갈린다. 그는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조선 선조 때 문인 윤두수의 후손이고 대한제국의 관료 윤웅렬의 종손이며, 윤치호의 종질이다. 윤치왕, 윤치창은 그의 당숙이었고, 윤치영은 그의 숙부였다.

영국 에든버러대를 졸업한 그는 8·15광

5·16 군사 쿠데타로 물러난 첫 내각제 대통령

복을 맞아 미 군정청 농상공 고문에 올랐다. 이어 한영협회장, 민중일보사 사장 등을 지낸 뒤 1948년 정부가 출범하자 초대 서울시장에 발탁됐고, 다음 해에는 상공부 장관이 됐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3대 국회의원,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리고 4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그는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물러나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4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최초의 내각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가 나자 1962년 사임했다. 1963년 민정당을 만들어

같은 해 대통령선거에 출마,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장과 겨뤘으나 낙선했다. 이후 6대 국회의원이 된 그는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으로서 1967년 6대 대선에 나가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또 졌다. 이후 1970년 국민당 총재, 1979년 신민당 총재 상임고문을 지냈다.

대통령직 하야 이후에는 반독재 투쟁에 주력했다. 특히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군부 내 좌익 프락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한일회담 반대운동, 민주회복 국민선언, 명동 시국선언 등에도 참여했다.

이은호 미래설계연구원 연구위원 leeeunho7@

온라인 화글화글



9월부터 공동주택 복도·계단 금연구역 “올 여름은 참으라고?”

9월부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아 공용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네티즌은 “당연한 일이다. 공용시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여름이라 더운데 문도 못 열어 놓고 9월까지 버틸 순 없다”, “금연 공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흡연할 곳을 마련하는 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카드로 보는 세상



지난 2일 문을 연 강남 카카오프렌즈숍. 카카오펀드 상품을 파는 곳으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오픈한 지 2주가 되어가는데 입장하려면 아직도 1시간은 줄을 서야 하니 말이죠. 210평 3층 건물엔 1500여 가지 상품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인형, 문구류는 물론 옷이랑 생활용품까지 ‘귀요미’ 캐릭터들이 가득하네요. 인기 캐릭터 ‘라이언’ 이름을 딴 카페도 있고요. 캐릭터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카카오프렌즈숍을 다녀왔습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iY48Jr>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쿱**이 좋습니다

총리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메리츠자산운용 CEO

한국사회는 이미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강점이었던 철강, 전자, 조선산업 등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취직은 점점 어려워지고, 빈부의 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쇠퇴도 우려된다. 이러한 한국의 어려움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세계는 엄청나게 변하는데 우리는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움이 커진 것이다.

한국이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면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 창업정신, 교육의 개혁, 여성 인력의 활용, 그리고 금융이다. 물건만 싸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의 주된 동력이 될 수 없다. 과도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높은 교육열,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기반, 근면한 국민성 등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장점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먼저 창업정신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 졸업 후 창업을 선호하지만 한국은 정 반대다. 창업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다. 리스크를 두

한국경제, 네 가지 활력이 필요하다

려워해 해고될 염려가 없는 직종을 찾아 다니는 것이다.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다. 이는 일본에서 새로운 세계적 기업이 나오지 않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스위스와 같이 강대국 사이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경제 대국이 될 중국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기회다.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한국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기회에 초점을 둔다면 한국에도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 교육은 수능 점수를 올리는 데 온 힘을 쏟을 뿐이다. 점수 하나만을 가지고 능력을 평가하는 줄 세우기식 교육은 최악이다. 좋은 교육은 학생들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노후 준비도 못 할 뿐더러 자녀들은 창의적인 생각의 부재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부모들이 진정으로 자녀를 생각한다면 사교육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는 경쟁력이 없다. 앞으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이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공부에 모든 역량을 쏟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공부만 잘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탈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

한국 여성들의 임원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특히 고위직 여성 인력을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이 더욱 성장할 것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경직되어 있는 국내 여성 인력들이 더욱 자유로워져야 한다. 여성들이 금융산업에 많이 진출해야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고, 한국의 권위적인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금융산업 또한 낙후되어 있다. 금융산업의 선진화는 한국의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개개인의 은퇴 준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과 같이 대부분의 자산, 특히 퇴직연금 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지 않고 은행 예금에 머물러 있다. 금융기관의 수장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한국의 금융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임기가 정해지면 혁신적인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 무엇보다 변화 없이 10년 후에도 똑같은 격정을 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세계는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생각의 변화가 절실해야 하며,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⑨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뉴미디어부 차장

피해자만 남는 연예인 성추문

좋은 뉴스만 골라 보기에다 버거운 세상입니다만, 연예인 성 추문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였는지도 가늠거릴 정도입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연달아 이어진 연예인 성 추문은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 또 다른 스타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포털의 뉴스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 역시 비슷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먼저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자측의 의미를 담아 일단 침묵합니다. 이어 소속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섭니다. 동시에 고소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힙니다.

실제로 이들 사건의 상당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존재하되, 가해자로 규정된 사람은 없는 사건이 되기도 하니까요.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따지는 옷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 측은 사건 직후 “성관계 이후 자갑에 있던 60여만 원을 건네줬다”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부정하려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발언이었습니다.

성폭행은 범죄이지만 성매매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으로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아가 약속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사기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가장 최근 성폭행 논란에 빠진 배우 이진욱에 대해서도 팬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엔 논란의 끝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그의 연기와 평소 이미지를 높게 샀던 팬들의 실



망이 이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나온 이 씨도 “무고는 큰 죄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유성무의 성폭행 논란은 이들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그동안 수없이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서 배우 박시후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니까요. 어느 사회학자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스타의 성 추문과 관련해 “누군가도 고소했으니 나도 고소해보자”라는 심리가 일부분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누가 연예인과 성 추문을 터트리고 몇 억 원’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 고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성 추문은 무죄가 입증되어도 피해자가 됩니다. 박유천의 경우 성폭행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해도 떨어진 이미지를 다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작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갈리는 사이, 우리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 후반, 세기말의 분위기를 타고 등장한 ‘한류’의 덕을 누려왔습니다. 한류의 중심 또는 밑거름이었던 이들의 잇따른 성 추문이 전체 한류의 이미지를 흐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junior@

이 준 훈 시인·산업은행 부장

참, 참나무

나무에도 거짓말하는 놈이 있는 모양이다
참나무라니
다른 나무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인지
게다가 편까지 갈라
줄참나무, 갈참나무, 줄참나무, 물참나무,

무언가 참으로 의심스러워
저만 참나무라고 하더니
이건 분명, 지가 거짓말하는 나무거나
나무다운 나무, 진짜 나무가 아니거나
허 참,
나무에도 거짓말하는 놈이 있다니
참이라고 하는 놈은 대개 거짓이려니

아쨌든,
수리산에는 참나무가 많다
그리고 참, 나무가 많기도 하다



최 재 혁 자본시장2부/freshphase@

“경영진 불공정거래 조사” 립서비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밝힌 기업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기획조사가 말로만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 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사’라는 단어를 들며 경영자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무진의 분위기는 다르다. “평상시에 진행하는 모니터링을 강조한 발언이다”, “평소에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지 특정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력은 없다” 등 진 원장의 발언 의미를 축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 원장 발언이 국회용 립서비스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실을 거창하게 부풀려 말했을 뿐 실행 여부는 챙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 원장 임기와의 무관치 않다. 그는 올해 말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3년 임기를 채운 금융원장은 윤증

현 전 장관 등 2-3명에 불과하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진 원장의 임기는 지금이 막바지일 수 있다. 그가 공약의 실천을 챙기기도 전에 조직을 떠날 수 있는 셈이다.

불공정거래 조사당국의 무게 추가 금융위원회로 이동한 것도 진 원장의 표현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설립된 이후 주요 사건은 이 조직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칙에 맞춰 사건을 배분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드물다. 불공정거래 조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주요 기업 경영진 기획조사와 같은 굵직한 사안을 금융원이 하도록 다른 곳에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꺼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조직 수장의 의무다.

“만일 마더 테레사께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을 것인가” —정호승

가난을 고발하려 인도로 떠난 사진가, 마더의 사랑에 물들다

마더 테레사, 넘치는 사랑

시인 정호승과 그 아버지의 손길로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녀의 깊고 큰 사랑!
인도 콜카타, 마더 테레사의 곁에서 보낸 사진작가의 7년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조광호(신부, 87개) ‘신이 어디 계시며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분과,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참사랑과 행복과 기쁨, 보람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분에게 나는 이 책을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이혜인(수녀, 시인) 생생한 사랑의 기록인 이 책 속의 사진과 글을 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기도이고 묵상이며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이웃사랑의 지침서입니다.

김혜자(배우)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희생이라는 실천을 통해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가르치신 넘치는 사랑뿐입니다.

www.hainaim.com 해냄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배는 항구 아닌 바다에”...위기 때마다 빛난 김범수 벤처정신

〈카카오 의장〉

e기업 집중해부 카카오 ㉔

“항구에 머물러 있는 배는 언제나 안전하다.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닐 것이다. 안전했기 때문에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11년 공식석상에서 밝힌 NHN(현 네이버) 퇴사의 변이다. 이는 김 의장이 카카오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김 의장이 처음 벤처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은 삼성 SDS 입사 이후부터다. 김 의장은 삼성SDS에 재직 중이던 1998년 6월, 서울 행당동 한양대학교 인근에 전국 최대 규모의 PC방인 ‘미션 남바원’을 부업으로 열었다. 이를 계기로 김 의장은 같은 해 삼성SDS를 퇴사하고 본격적인 벤처사업가의 길로 들어섰다.

사업 수완도 남달랐다. 김 의장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PC방 사업과 연계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수익 모델을 구축했다. PC방 고객 관리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짝절한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

김 의장은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게임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998년 11월 서울 테헤란로 뒷길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한게임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1년 6개월 만에 회원이 1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때 김 의장에 게 위기가 닥쳤다.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한게임 회원

삼성SDS 입사후 벤처 관심 가지며 PC방 부업
1998년 11월 설립 한게임 폭발적 반응 불구 적자
이해진 의장과 의기투합 포털 지각변동 일으켜

2008년 네이버 떠나 ‘아이위랩’ 인수 새 도전
시장반응 신통치 않자 모바일 ‘카카오톡’ 출시
1년새 회원 1000만 돌파 급성장에도 자금난

中 텐센트 등서 유치한 자금 기반 흑자 전환
2014년 다음과 합병 후 자산규모 2조7680억
올해 초 ‘로엔’ 인수하며 5조대 공룡기업으로

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적자가 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김 의장이 만난 사람이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다. 둘은 대학교 때부터 잘알던 사이로, 삼성SDS 동기로 절친한 관계였다.

둘의 만남은 한게임과 네이버를 NHN(현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로 분리)으로 합치며 포털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초창기 때 NHN을 먹여 살린 것은 한게임이었다. 2001년 게임에서 사생활 아이템을 파는 것이 대박이 나서 NHN을 단번에 국내 포털업계 1위로 등극시켰다.

2007년 김 의장은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NHN USA 대표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듬해 회사를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벤처기업 ‘아이위랩(현 카카오)’을 인수하며 재기를 모색했다. 아이위랩을 통해 김 의장은 동영상과 사진 등 콘텐츠 공유 기능이 강한 부루닷컴과 집단지성의 기능을 가미한 추천정보 사이트 위치아닷컴을 선보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김 의



카카오 주요 연혁

1995년 2월	2006년 12월	2010년 9월	2014년 5월	2014년 10월	2015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 설립	카카오 전신인 아이위랩 설립	(주)아이위랩, (주)카카오로 사명변경	다음커뮤니케이션-카카오 합병 발표	다음카카오 통합법인 출범	다음카카오, 카카오로 사명변경

장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시각에서 재도전을 했다. 모바일시대로 급변하는 환경을 간파하고 아이위랩을 모바일로 최적화시킨 ‘카카오톡’을 내놓은 것이다.

카카오톡은 2010년 1월 프리랜서에서 메신저를 개발한 경험이 있던 이상혁 CSO(Chief Strategy Officer)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카카오톡은 말 그대로 대박을 쳤다. 회원 수가 6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더욱 가파르게 성장해 1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아이위랩은 아예 기업 이름을 카카오로 바꿨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수익이었다.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던 카카오톡 서비스는 자금난에 봉착하게 됐다. 적자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카카오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위기상황이 최고

조에 달하던 2012년 김 의장은 중국 최대 게임기업인 텐센트에서 720억 원, 위메이드에서 200억 원 등 총 920억 원의 자금 유지에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는 같은 해 70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한데 이어 2013년에는 이익을 수백억원 규모까지 늘릴 수 있었다.

기세를 몰아 카카오는 2014년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을 선언하고 같은 해 10월 다음카카오 합병법인을 출범시켰다. 자산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카카오는 다음과 합병 후 2172억 원이었던 자산이 2조768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초에는 음악 콘텐츠 기업 ‘로엔’을 인수하면서 자산 총액 5조 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카카오를 움직이는 사람들

‘독심있는 회사’ 임지훈·남궁훈 젊은 선장의 힘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의 힘은 ‘맨 파워’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진력 있는 젊은 선장들은 카카오를 개성 넘치면서도 독심 있는 회사로 만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임지훈 카카오 대표와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2012년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케이큐브벤처스’를 설립하면서 임 대표를 영입해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를 맡긴데 이어, 지난해 다음과 합병법인으로 거듭난 통합 카카오의 첫 최고경영자(CEO)로 발탁했다.

임 대표는 올해 3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집단경영체제 대신 본인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강화했다. 지난해 각 부문 최고 책임자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 CXO팀을 만든 지 1년 만이다. 단독 경영체제를 통해 발빠른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택시’, ‘카카오드라이버’ 등

임지훈
카카오 대표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임 대표, 작년 통합카카오 첫 CEO 발탁
올 초 단독 경영체제로 발빠른 의사결정
남궁 대표, 게임부문 수장 되며 매출 속
VR 집중...멀티 플랫폼 기업 도약 계획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의 현안이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임 대표는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게임부문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같은 해 12월 카카오 조직 내 게임사업총괄부문을 신설하고 당시 연진의 수장이었던 남궁훈 대표를 영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게임부문 매출은 지난해 1분기 700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2분기 539억 원, 3분기 513억 원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며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결과는 맞아 떨어졌다. 남궁 대표가 부임하자마자 올해 1분기 게임부문 매출액은 703억 원으로 급상승했다. 시장에서는 2분기와 3분기 각각 728억 원, 779억 원으로 상승 곡선을 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궁 대표는 카카오게임즈를 PC온라인과 모바일, 스마트TV와 VR(가상현실)을 아우르는 멀티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특히 VR사업을 핵심 분야로 설정했다. 지난 5월 카카오게임즈는 골프 전문기업 마음골프와 VR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게임즈는 마음골프가 개발하고 있는 VR 골프게임의 글로벌 서비스를 맡게 되며 이 게임은 조만간 오콜러스 스토어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남궁 대표는 유망한 게임업체들의 지분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 로이게임즈에 60억 원 투자를 결정하고 ‘화이트데이 VR’ 등 로이게임즈의 차기작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게임 창업멤버로 NHN USA 대표, CJ인터넷(현 넷마블게임즈) 대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두루 역임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게임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다방면에 걸쳐 인맥을 쌓았다.

김범근 기자 nova@

카카오 지배구조 살펴보니

김범수 의장, 지분율 18.61%로 최대 주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업계에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네이버를 공동 창업한 김범수 의장은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카카오를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는 공룡기업으로 일궈냈다.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김범수 의장으로, 현재 18.61%(1256만446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14.74%(994만9467주)로 2대 주주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출자하고 있는 곳이다. 가족과 계열사 임직원 지분율까지 모두 합치면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의 절반가량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중국 텐센트의 투자 자회사인 ‘맥시모 Pte Ltd’가 8.29%(559만9849주)로 3대 주주다. 텐센트는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하기 이전인 2012년 4월 카카오 주식 360만 주를 720억 원에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주요 주주의 위치를 차지하고

가족·계열사 임직원 합치면 절반 차지
中 텐센트 자회사 8.29%로 3대 주주
최근 홍콩사모펀드 4대 주주로 부상
자사주 매입 임지훈 대표 책임경영 강화

있다.

카카오가 올해 1월 음원서비스 멜론을 보유하고 있는 ‘로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가 주요 주주로 올라섰다. 카카오는 로엔 인수를 발표하고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로엔의 1대 주주였던 스타인베스트홀딩스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후 스타인베스트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 8.23%(555만5972주)를 갖게 돼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4대 주주에 올랐다.

카카오 지분 보유 현황

(단위: %, 괄호는 보유 주식수, 7월 13일 김범수 의장 지분변동 공시일 기준)

그 외
50.12(3383만6929주)



임지훈 대표
0.01(4264주)

임지훈 대표 역시 올해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임지훈 대표는 취임 6개월째인 올해 3월 2742주, 6월 1522주 등 총 두 차례 자사주를 매입하며 총 4264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 전체 주식에 비해 0.01%로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실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 대표가 직접 자사주를 사들이며 책임경영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

석한다. 카카오는 1분기 영업이익 21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7.7% 감소한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임 대표의 자사주 매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한편 카카오의 자본금은 약 300억 원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시가총액 약 6조280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tiatio@

알뜰휴가 ‘멋부림’ ‘맛부림’

바캉스 먹거리 기획전

와자지껄한 즐거움이 있는 바캉스의 계절이다. 바캉스는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함께 어울리는 사람과 맛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묘미다. 최근 바가지 물가에 지친 소비자들 이 만들기 간편한 먹거리를 직접 집에서 준비하는 이들이 늘면서 식품업체가 다양한 바캉스 먹거리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특히 캠핑 등 휴가철 야외활동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동원참치는 우리 식탁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식품이다. 휴가철에도 가방에 몇 개쯤은 넣어 가는 필수품으로 최근에는 즉

석식품을 뛰어넘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바캉스 식단의 영양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휴가철에는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복통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유당을 제거한 ‘락토 프리’ 우유인 매일유업의 ‘매일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후기가 최근 선보인 ‘바베큐소스’와 ‘바베큐소스 매운 맛’도 캠핑의 대표적인 인기 메뉴인 바비큐 요리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식품업체는 각종 기획전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알뜰한 쇼핑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 역시 여름 휴가철맞이 ‘서머 바캉스 기획전’을 통해 바캉스용품들을 할인 판매한다.

이선애 기자 isa@



파리바게뜨 ‘치즈단팥 코팡’



파리바게뜨가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은 한류빵 ‘코팡(KOPAN)’의 신제품인 ‘치즈단팥 코팡’을 출시했다.

‘치즈단팥 코팡’은 ‘단팥크림 코팡’과 ‘밤크림 코팡’에 이어 3번째로 선보이는 코팡 시리즈 제품이다. 버터, 달걀을 함께 넣어 반죽해서 만든 부드러운 고소한 프랑스 빵 브리오슈에 부드러운 크림치즈와 단팥이 듬뿍 들어가 절묘한 맛의 조화를 이룬다. 특히 생크림을 발효시켜 상큼함이 일품인 크림치즈가 들어가 여름에 즐기기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즈단팥 코팡’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1500원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단팥과 잘 어울리는 맛을 연구한 끝에 그 답을 크림치즈에서 찾아냈다”며 “크림치즈와 단팥의 조화가 절묘한 ‘치즈단팥 코팡’은 특유의 상큼한 맛이 여름에 즐기기에 제격”이라고 설명했다.

‘코팡’은 프랑스 파리에 진출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파리지역의 입맛을 먼저 사로잡았다. 게다가 파리 매장을 방문한 국내 여행객들이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중



심으로 입소문을 퍼뜨렸다. 덕분에 이 제품은 국내에 출시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코팡은 국내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개가 판매됐고, 9개월 만에 10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한국의 빵(Korean Pan)’과 프랑스어로 ‘친구(Copain)’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코팡’은 지난해 한·불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되며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또한 코팡은 ‘2015 THE PROUD 주목받는 신상품(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6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한국소비자포럼)’, ‘2016브랜드빅리그(한국소비자포럼)’ 등 각종 브랜드 수상을 석권하며 그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AK플라자 ‘서머 바캉스 기획전’



AK플라자는 18일부터 21일까지 분당점(사진)을 비롯해 구로본점, 수원AK타운점, 평택점, 원주점 등 전 점에서 여름 휴가철맞이 ‘서머 바캉스 기획전’을 통해 바캉스용품을 최고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구로본점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여성 바캉스 패션 상품을 40~60%까지 할인 판매한다. 크로커다일레이디스의 티셔츠를 3만9900원에, 캐리스노트 여름 블라우스를 3만 원에, 샤프렌의 티셔츠를 3만9000원에 판매한다.

분당점은 5층 이벤트홀에서 여름 원피스와 비치웨어를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스티크의 비치 원피스를 1만5000원에, 레코브의 원피스를 1만9000원에, 지프의 레시가드를 4만9000원에 판매한다. 썬소나이트와 AT 캐리어의 여행용 가방은 30~50%까지 할인가격으로 내놓는다.

수원AK타운점은 5층 행사장에서 라코스테, 에스까다, 듀폰, 겐조 등의 선글라스를 50~70% 깎아 판매하고 소다, 미소페, 고세 등의 여름 샌들을 6만9000원부터 선보인다.

평택점은 7층 이벤트홀에서 막스마라, 아가타, 게스, 루이까또즈의 선글라스를 5만 원대부터 판매



하고, 원주점은 스포츠·아웃도어 할인전을 통해 헬라, 아이더, 블랙야크, 밀레의 비치웨어를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AK플라자는 지난주 17일까지 구로본점, 수원AK타운점, 분당점, 평택점, 원주점 등 전 점에서 여름세일을 진행했다. 세일기간 매주 주말에 고스트버스터즈의 캐릭터로 디자인한 바캉스시즌 사은품을 증정했고, AK플라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스트버스터즈 리미티드 에디션도 선보였다. AK플라자는 보니알레스, ab.fz, 네오람, 플라이백 등 입점브랜드와 협업으로 고스트버스터즈 로고 및 캐릭터를 디자인에 활용한 반팔 티셔츠, 쇼파백, 아동 모자 등도 30~100매 한정수량 판매했다.

김지영 기자 gutj@

동서식품 ‘카누 아이스 블렌드 아메리카노’

캠핑가서 카페 찾지말고... ‘시원하게 카누’



동서식품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한정판 제품으로 ‘카누 아이스 블렌드 아메리카노’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겨울 한정판 판매한 ‘카누 크리스마스 블렌드’에 이어 선보이는 이 제품은 7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여름에만 판매하는 제품인 만큼 산뜻한 산미와 과일향이 특징인 케냐 원두를 미디엄 로스팅해 깔끔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맛을 완성했다.

‘카누’는 물에 잘 녹으면서도 원두의 맛과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카누’는 기존 인스턴트 커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압력으로 추출하는 LTMS(Low Temperature Multi Stage) 추출법을 사용했다. 이 기법은 같은 양이라도 일반 인스턴트 커피보다 많은 원두를 사용한다. 원두커피 고유의 맛과 향을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이 방식을 택했다.

‘카누’는 찬물에도 잘 녹아 여름에 쉽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마실 수 있다. ‘카누’ 스틱 1개를 차가운 물 180~200ml에 잘 섞으면 얼음이 없더라도 시원한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된다. 카페에서 즐



기는 아메리카노의 용량을 원할 경우 ‘카누’ 스틱 2개에 물 400ml를 넣으면 카누 아이스를 즐길 수 있다. 달콤한 아메리카노가 생각난다면 자일로스 슈거를 담은 ‘카누 스위트 아메리카노’를 이용하면 된다. 적은 양의 카페인 섭취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카누 디카페인’도 있어 취향대로 즐길 수 있다.

여름 한정 제품 출시를 기념해 동서식품은 ‘카누 아이스 블렌드 아메리카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스테인리스 컵과 머들러(커피 짓는 막대)를 함께 증정한다. 특수 제작된 스테인리스 컵은 온도 유지 기능이 뛰어나 오랜 시간 동안 아이스커피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동서식품 측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카누’의 매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LOTTE

상쾌함의 차이가
스타일의 차이

천연 과일향과 탄산이 만나,
상쾌함을 높이고 스타일은 살린다



롯데칠성음료
[운동기상 휴양여행 선물선배 올버로기]

상쾌함의 높이가 다르다!
STYLISH SPARKLING WATER

TREVI

매일유업 '소화가 잘되는 우유'

우유 유당만 제거... 배탈 걱정 안녕~

Maeil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복통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우유 섭취를 꺼린다면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락토프리 우유로는 매일유업의 '매일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소화가 잘되는 우유'는 매일유업만의 차별화된 락토프리 공법으로 유당만 분리해 제거하고, 우유 본연의 맛과 단백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는 그대로 담았다. 특히 한국인에게 부족한 칼슘은 2배로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매일유업이 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정영은 교수팀과 연구를 진행해 락토프리 우유의 유당불내성 증상 완화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강화했다.

'소화가 잘되는 우유'는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오리지널(930ml/180ml 용량) 및 저지방(930ml)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저지방 제품은 일반우유 대비 지방을 50% 이상 줄여 여름철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 섭취를 신경쓰는 사람들도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다.

매일유업은 이와함께 올해 소비자들이 언제 어



디서나 소화가 잘되는 우유를 즐길 수 있도록 무균 포장 기술을 적용해 실온에서도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한 멸균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190ml의 가벼운 용량으로 여름철 야외나들이 활동 시 휴대하기에 편리하다.

한편 매일유업은 소비자들이 우유를 마시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우유원샷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우유가 꼭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우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4년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과 기부금 모금을 위해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와 유사한 방식이다.

안철우 기자 acw@

동원F&B '동원몰'

'할인천국' 알뜰족 찾는 1등 식품쇼핑몰



동원F&B가 운영하는 '동원몰'은 식품제조사 기반 온라인몰 중 2015년 연간 40만건의 주문과 함께 방문자수가 가장 많은 인기 쇼핑몰로 꼽히고 있다.

동원몰은 회원들에게 등급별로 쇼핑지원금과 각종 할인혜택을 지원한다. 최고 등급 '레드' 고객에게 동원상품 최대 20% 할인쿠폰과 쇼핑지원금 2000원을 매달 지원하며, 당월 구매액이 3만 원 이상일 때는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레드등급은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총 6회 이상의 구매횟수에 구매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즉시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가입 고객, 첫 구매 고객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등급별로 5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쇼핑지원금을 제공한다. 쇼핑지원금 외에도 매달 각종 할인쿠폰을 통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알뜰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동원몰은 고객들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밴드배송'은 고객들의 호응이 가장 좋은 서비스로, 동원 제품 1000여개를 비롯해 코스트코 1500여개 상품과 대형할인마트



상품 3000여개, 총 6000여개의 다양한 상품을 묶어서 배송하는 서비스다.

'식품 아울렛 매장'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명제조사 제품들을 최대 90%까지 할인 판매한다. 식품을 구매 후 저장하지 않고 바로 소비하는 것이 목적인 소비자들에게 유용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렛 매장의 모든 제품은 제품별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어 확인 후 구입할 수 있다.

또 요일별로 진행되는 기획전별로 할인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해당 기획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은 지정된 요일에 구매할 시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gutij@

해태제과 '생과일·디저트 아이스크림'

복숭아·포도 과즙 듬뿍! 과일이 살아있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아이스크림 시장도 성수기에 접어들었다. 해태제과는 올 여름 빙

과 시장 트렌드로 생과일 아이스바와 디저트 아이스크림을 꼽았다.

18일 해태제과에 따르면 바나나에 이어 올 여름은 수분이 가득하고 향긋한 복숭아와 포도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해태제과는 이에 따라 복숭아·포도 생과일을 그대로 넣어 만든 '백도바'와 '그레이프킹'을 출시했다. 이들 신제품 2종은 최근 하루에 각각 3만개씩 판매될 정도로 인기 신제품으로 떠올랐다.

'백도바'와 '그레이프킹'은 과일 본연의 맛과 아이스바의 청량감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과일 함유량이 높을 때 느껴지는 텁텁함을 잡기 위한 노력 끝에 최적의 배합 비율을 찾아냈다. '백도바'는 복숭아를 으개 만든 과육(퓨레) 35%를 넣어 복숭아의 달콤함과 특유의 말캉한 식감을 구현했다. '그레이프킹'은 포도를 농축한 엑기스를 13% 넣었다. 수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여름 제철과일을 아이스바로 만들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생과일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과일 함유량을 기존 제품 보다 2~4배 이상 대폭 늘리고 아이스바의 청량감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생과일보다 디저트 제품이 끌린다면 지난 겨울 해태제과가 출시한 '티라미쵸' 아이스크림을 추천한다. 이 제품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티라미쵸 케이크 본연의 맛에 커फी아이스크림의 시원함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케이크 수분 함량이 높아 부드럽고, 분말이 아닌 코코아 케이크 자체에서 묵 넘김이 부드럽다.

해태제과 측은 "가격과 품질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만큼 가성비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에 크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오뚜기 '캠핑 간편식품'

장국서 바비큐까지... 맛난 요리 똑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외에서도 맛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캠핑족을 위해 오뚜기에서는 캠핑의 대표적인 인기 메뉴인 바베큐 요리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베큐소스'와 '바베큐소스 매운맛'을 출시했다.

'오뚜기 바베큐소스'는 향긋한 허브와 레드와인 이 풍미를 살려주는 소스로, 삼겹살, 스테이크에 찍어 먹거나 바베큐 립, 닭(날개, 다리)에 발라 구워 먹을 수 있어 가정이나 캠핑장 어디서나 활용 가능하다. '오뚜기 바베큐소스 매운맛'은 화끈한 불맛이 살아있는 매콤한 바베큐 소스로 어떤 요리나 화끈한 매운맛과 참숯향 가득한 불맛을 살리고 싶을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야외에서도 밥은 꼭 내 손으로 지어야 제 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씻어나온 오뚜기쌀' 가 바베큐를 추천한다.

오뚜기가 국내 최초 벼 가공기술로 탄생시킨 '씻어나온 오뚜기쌀 가바베큐미'는 가바 함량이 일반 백미 대비 약 10배, 일반 현미 대비 약 2.5배 높다. 또 물만 부으면 간편하게 밥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장점이다.

가바베큐미는 씻어나온 제품이라 씻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쌀이 없다는 경제성과, 쌀뜨물로 인한 환



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성을 고루 갖춘 제품이다.

이 밖에 다양한 요리에 간편하게 활용 할 수 있는 1인분 소용량 비빔장, 국수장국도 있다. 이번에 출시한 1인분 파우치 제품은 기존 비빔장과 국수장국 제품을 새롭게 1인분 용량의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별도의 계량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오뚜기 국수장국'은 음식 재료를 다양하게 준비할 수 없는 야외에서 손쉽게 국물 요리의 맛을 낼 수 있는 제품이다. 멸치국수장국, 쇠고기국수장국, 가쓰오부시국수장국 등 3종류로, 가쓰오부시국수장국은 우동이나 메밀국수 같은 말아 먹는 면 요리 국물에 활용하면 더욱 좋다.

김희진 기자 heejin@



SPECIALTIES
1025.1537

Time is our tradition.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91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192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6191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89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02)6965-2637
 롯데아울렛 광명점 02)6226-2142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031)936-3577 롯데아울렛 부어점 041)435-2608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1695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35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81 이타임월드 02)313-4108 타임갤러리 070)8265-5528 이노아이 02)6002-6123 시계상자 031)441-0802 사본위치 031)463-9788 티파니 031)931-5555 WB(워치보이) 070)8632-5300 패션아일랜드(예진) 042)280-9117 명성시계 051)253-5354
 [면세점] 갤러리이벤트점 63점 02)2136-2646 동화면세점 02)1688-6680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02)6370-4072 신라면세점 서울점 02)2230-3997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064)780-7669 SM면세점 서울점 02)2120-6027

BIG BANG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힘들고 어려웠던 아이언 4,5번 거리를 이제부터는 아이언 7,8번으로

쉬고, 포기하지마세요!!



누구나 한두번 실수를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실수 후에 만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누구나 가끔 드라이버를 잘못칠 수 있지만
현명한 골퍼는 세컨샷 선택이 다릅니다
돌이켜 보면 스코어는 여기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길게 남은 거리 - 롱아이언을 잡아야 할 시점에
40야드 더 나가는 뱅롱디스턴스 숏아이언을 잡으면
쉽고 편하게 투온이 되어
티샷 실수를 만회합니다.

반발계수 0.925
40yd 더 나가는 **극초고반발**
하이브리드 **아이언**
BIG BANG Longdistance

일반적인 아이언보다

-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체적이 커서 스위트스팟이 넓고 빗맞아도 뒤틀리지 않는다.
- 출발 백스핀 1.12배, 착지 백스핀 3.5배 증가 - 백스핀이 너무 많아 그루브를 없앴다.
- 뒷땅이 없다.
- 엘보우가 없다.
- 스윙이 쉽고 편하다.
-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 (초경량, 스윙밸런스 B3까지도 가능)

**대표전화 : 1544-807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37-3 (아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Made in Japan or Made in Korea -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신개념 칵테일 발효주 ‘믹스테일’로 홈파티

오비맥주(주)
Oriental Brewery Company

식지 않는 ‘룩방’ 열풍과 실속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영향으로 집에서 홈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오비맥주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신개념의 칵테일 발효주 ‘믹스테일(MixxTail)’ 2종을 선보였다.

믹스테일은 ‘홈파티족’처럼 가정에서 가볍게 술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을 반영해 탄생했다. 오비맥주 측은 클림, 라운지바, 캘리리, 파티 현장에서 바텐더가 제조해준 최고급 칵테일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출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오비맥주가 맥주 이외의 제품으로는 사실상 첫 선을 보인 신개념 발효주 ‘믹스테일’은 모히토와 스트로베리 마가리타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된다. 두 제품 모두 650ml(용량: 275ml)용량의 병제품이다.

‘믹스테일’ 모히토의 경우 맥아를 발효해 얻은 양조 원액에 라임과 민트를 더했다. ‘믹스테일’ 스트로베리 마가리타는 딸기의 새콤달콤함과 라임의 상큼한 맛이 탄산과 조화를 이룬다. 두 종류 모두 알코올 도수는 8도로 다소 높



지만 부드러운 뒷맛으로 음용감이 좋다.

이와함께 오비맥주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믹스테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매장을 열고 홈파티족 공략에 나섰다. ‘믹스테일 하우스’는 완벽한 홈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오는 29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상설부스 외에도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제공한다. 요리, 홈파티 장식은 물론 홈파티 문화를 알리기 위한 강연을 비롯해 재즈와 클래식 연주, 힙합, 라운지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도 한다. 정유현 기자 yhssoo@

종이팩·파우치로... 캠핑서도 ‘처음처럼’

롯데주류

롯데주류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패키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롯데주류에 따르면 주류는 대부분 병과 캔으로 포장돼 부피를 많이 차지할 뿐 아니라, 파손 위험이 있어 나들이나 캠핑 시 불편함이 있었다. 롯데주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파우치, 페트, 종이팩 등 편의성을 강조한 이색 패키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순한 꿀’, ‘순하리 처음처럼’, ‘마주앙’ 등 3종의 파우치 제품을 출시했다. 주머니 형태의 몸체에 돌림 마개를 만들어 넣은 용기인 지어팩으로 포장돼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다. 특히 냉장고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면 페트나 종이 제품보다 빨리 차가워져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처음처럼 순한 꿀’은 영하 18도 이하 냉동고에 보관하면 슬러시처럼 즐길 수 있다. ‘순하리 유자 파우치’는 ‘순하리 유자’와 동일한 제품으로 소주 베이스에 천연 유자 농축액과 유자향을 첨가해 유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목넘김이 좋다. 국산 와인의 대표주자 ‘마



주앙’도 파우치 제품이 출시돼 부담 없이 야외에서 가볍게 와인을 즐길 수 있다.

페트병로 출시된 ‘순하리 처음처럼’은 현재 유자, 복숭아, 사과, 자몽, 소다까지 총 5가지로 각각 한눈에 과일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페트병의 컬러를 달리했다. 페트병 용량은 병 제품보다 40ml 많은 400ml다. 알코올 도수는 유자 14도, 나머지 4종은 12도다. 지난해에 불었던 과일 맛 소주의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순하리 소다톡’도 페트병 제품으로 출시됐다.

와인 역시 유리로 된 병의 파손 위험과 무게 때문에 야외로 나갈 때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 롯데주류가 선보인 ‘페나술 와인’은 종이팩 패키지를 사용해 파손 위험을 줄였다.

김하늬 기자 honey@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려면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술이다. 시원한 맥주 한 모금과 소주 한잔은 어느새 여름 더위를 물러가게 해주고, 지친 몸을 달래준다. 이에 주류업계의 여름 마케팅이 한창이다. 도심 근교에서 펼쳐지는 캠핑을 후원하기도 하고, 스페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원한 주류 제품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또 휴가 시즌을 맞아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패키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가족단위 캠핑족을 위한 종이팩 와인이나 얼려서 먹을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소주 제품이나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페트 맥주 제품 등이 인기다. 특히 파우치 제품은 냉장고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면 페트나 종이 제품보다 빨리 차가워져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 바캉스족의 만족도가 높다. 유리로 된 와인 병의 파손 위험과 무게 때문에 야외활동에는 쉽게 선택할 수 없었던 까닭에 종이팩 와인이 인기다.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수입 브랜드의 흑맥주도 바캉스의 대표 인기 제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선애 기자 isa@

하이트 야구마케팅...나성범 ‘30-30’ 응원

〈NC다이노스〉



출시 후 22년간 약 330억 병 판매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민 맥주 하이트는 올 여름 하이트 리뉴얼 출시 이후 처음 맞게 되는 맥주 성수기를 앞두고 프로모션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야구마케팅, 신규 CF 방영, 대학 축제 지원, 휴가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본격적인 여름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스포츠 시즌을 맞아 프로야구 5개 구단(삼성 라이온즈, SK와이브스, NC다이노스, KT위즈, 한화이글스, 가나다순)과 함께 다양한 야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6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는 NC다이노스와 국내 최초로 특급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다.

팬맥(팬들과 함께 즐기는 친맥)을 주제로 NC다이노스 나성범 선수의 2016시즌 30-30 기록을 응원하며, 나 선수의 모습이 담긴 스페셜 에디션 출시했다.

올뉴하이트의 새로운 라벨 안에 나 선수의



킨 배우 송중기를 하이트의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하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송중기를 활용한 새로운 TV CF를 선보였으며, 현재 2편을 방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소비자들의 요청으로 ‘하이트 송중기 스페셜 캔’을 출시했다. 국내 맥주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모델을 활용한 한정판 제품 출시이다.

다음 달 말까지 약 한 달간 모델 송중기 얼굴을 담은 스페셜 캔(355ml, 500ml)을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달콤 쌉싸름... 女心잡은 흑맥주 ‘코젤다크’



여름은 맥주의 계절이다. 시원하고 상쾌한 생맥주도 인기지만 사브밀러브랜드코리아는 체코 프리미엄 흑맥주

‘코젤다크’를 추천한다. ‘코젤다크’는 1인당 맥주 소비량 세계 1위인 체코를 대표하는 흑맥주로, 마니아들 중에서 일명 ‘염소맥주’로 불리고 있다.

18일 사브밀러에 따르면 코젤다크는 리뉴얼 패키지를 출시하고, 기존 흑맥주와 달리 달콤 쌉싸름한 맛으로 여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유럽의 맥주 잡지 ‘비어 큐리어’에서 8차례 최고의 맥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코젤다크’는 독특한 디자인과 색다른 맛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흑맥주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어로 염소를 뜻하는 ‘코젤(Kozel)’이란 이름답게 라벨에 강한 느낌의 염소를 연필로 스케치한 듯 부드럽게 표현하고, 동시에 빈티지한 느낌을 부여했다. 또한 염소 마을로 유명한 체코 벨코포비키의 마을 전경을 삽입해 142년의 브랜드 철학과 헤리티지를 강조했다. 라벨 속 독특한 염소 그림은 100여년 전 체코를 여행 중이던 한 화가에 의



해 마스코트 이미지로 만들어진 이래 현재까지 브랜드의 상징적 존재다.

현재 국내에서 ‘코젤다크’는 서울 주요 상권인 이태원, 홍대, 강남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각 매장마다 한 달 평균 판

매량이 10만잔 이상을 기록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부 생맥주 판매점에서 시나몬 파우더와 함께 마시는 ‘코젤다크 시나몬’ 레시피로 소개돼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코젤다크’ 관계자는 “맥주 잔을 든 염소와 체코 마을의 따뜻한 전경이 조화를 이룬 패키지 디자인은 142년의 전통과 함께 ‘함께 어울려 마시는 맥주’라는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썸 맛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에게 흑맥주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세븐에이트

동성제약

어두워지지 않는 새치 염색 - 세븐에이트

언제나 밝은 느낌 -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여성용]

새치와 검은 모발의 편차가 적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두워지지 않아 처음 색상 그대로 밝고 빛나는 컬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븐에이트 전속모델 | 탤런트 차 화 연

| 소비자상담실 | 080-547-3571 |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빛소프트·토탈소프트·드래곤플라이〉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7.68포인트(1.10%) 상승한 700.28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지난 13일 약 한 달여 만에 700선을 회복한 뒤 700선 흐름을 지켜냈다. 시가총액은 13일(215조 9000억 원)과 14일(216조 7000억 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제 리드는 최대주주 변경 소식의 영향으로 18.58% 내렸다. 리드는 지난 12월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임종렬 외 2인에서 디자이퍼홀딩스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주가는 3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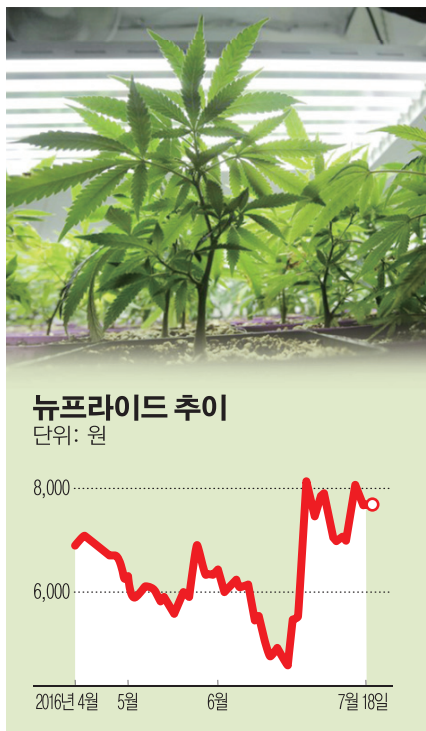
의료장비업체 셀루메드(16.25%)의 주가도 일주일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뼈이식재 제품 라퓨젠 DBM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로부터 의료가기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를 탔지만 이후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밖에 액트(-16.33%), 쌍용정보통신(-15.58%), 매디프론(-15.44%), 에스티큐브(-14.64%), 녹십자랩셀(-14.17%), 바이오리더스(-13.62%), 쉐케이에이지(-12.52%) 등이 지난주 코스닥 주가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유혜은 기자 euna@

문의: 02-2128-8773

새주인 맞은 뉴프라이드, 대마사업 ‘불씨’ 댕긴다



英SRV 유증대금 납부... 지분 8.06% 보유 최대주주 “기존 북미지역 이외 안정적 유통채널 확대 집중 계획”

뉴프라이드가 영국계 투자업체를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하고 글로벌 대마 사업에 시동을 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뉴프라이드는 영국계 ‘에스알브이엔터프라이즈(SRV ENTERPRISES, 이하 SRV)’를 대상으로 시행한 약 145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뉴프라이드 측은 이번 증자과정에서 최대주주로 등극한 SRV가 구심점이 되어 글로벌 대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애초 예정했던 증자 대상을 SRV 단일체제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개인투자

자들이 합류해 약 180억 원 규모로 진행된 바 있다. SRV 단일체제로 유상증자가 진행되면서 기존 예정됐던 금액의 80.5% 수준인 약 145억 원 규모가 모집됐으며, SRV는 최종적으로 뉴프라이드 지분 8.06%를 확보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기존 최대주주인 골든아이바이오에너지는 지분율이 8.19%에서 6.74%로 변경돼 2대 주주가 됐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4027원, 발행주식 수는 356만903주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일로 변경 없이 진행된다. 뉴프라이드는 증자대금 확보를 배경

으로 애초 증자 주요 목적이었던 글로벌 대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받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뉴프라이드는 최대주주인 SRV 측과 의료용 합법 대마초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유통 채널을 논의해 왔다. 뉴프라이드는 이미 미국 네바다(Nevada) 주의 대마초 재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리아스탠다드홀딩스(Aria Standard Holdings)의 지분인수 계약에 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프라이드는 기존에 확보해 둔 북미지역 외 안정적인 유통 채널의 확대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뉴프라이드 관계자는 “글로벌 대마 사업이 새로이 개척되는 분야인 만큼, 증자과정에서 좀 더 안정적인 경영구조의 확보와 이익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대상 및 일정이 연기되는 등 일부 진통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투자 대금 확보를 통해 글로벌 대마 신사업을 비롯한 기존 사업들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프라이드 최대주주로 들어서는 SRV는 영국계 법인으로 2013년 12월 설립된 국제 부티크 사모펀드로서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기업과 부실자산 투자 등과 같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SRV는 미주, 유럽, 아시아에 기반을 둔 자원, 기술, 패션, 생명공학, 특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단행했다. 최근에는 캐나다 상장사 및 비상장사에 지분 투자로서 유상증자 또는 주식매입을 통하여 기업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성시종 기자 ssj@

SP 주간동향

‘스맥, 中에 의료용 로봇치료대 첫 공급’ 6% 이상 올라

7월 둘째 주 본지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스톡프리미엄에서는 종목 돋보기 5건, 공시돋보기 1건 등 6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가운데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기사는 ‘스맥, 중국에 11억 규모 의료용 로봇치료대 최초 공급...본격 중국 수출 기반 마련’이었다. 기사 게재 당일 주가는 3.63% 올랐다. 주간 상승률은 6.28%를 기록했다. 기사에 따르면 스맥은 중국 상하이 응용물리연구소와 11억 원 규모의 의료용 로봇치료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1959년에 설립된 중국 상하이의 중국과학원상해응용물리연구소(이하 SINAP)는 입자가속기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핵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중국의 권위 있는 핵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스맥으로부터 의료용 로봇치료대를 공급받아 2017년

SP동향 종목돋보기 기사 리스트 (종가기준)			
기사명	당일 추가 등락률	주간 추가 등락률	
스맥, 중국에 11억 규모 의료용 로봇치료대 최초 공급...본격 중국 수출 기반 마련	3.63%	6.28%	
사이맥스, 15.6조 규모 삼성반도체 평택고덕단지 수주 증가...인공 지능 AI 최초 개발	-5.67%	6.07%	
화진, 경북 영천에 부지 약 9만㎡ 보유...대구 신공항 수혜 기대	9.06%	-0.46%	
모다정보통신, 자회사 플레이어옥션 美서 ‘포켓몬고’ 아이템 거래	11.24%	7.23%	

에 양성자를 이용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자 및 중입자 치료는 암치료에 대한 임상적 효과가 입증돼 세계적으로 점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시스템에 적용되는 로봇치료대는 부가가치가 높아 이번 중국과의 계약이 로봇치료대의 타 국가 수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4일 게재된 ‘모다정보통신, 자회사 플레이어옥션 美서 포켓몬고 아

이템 거래’ 기사도 당일 이 회사 주가를 11.24% 끌어올렸다. 모다정보통신이 최근 인수한 자회사 플레이어옥션이 북미지역에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고(GO)’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모다정보통신은 최근 게임아이템사 IMI엑스체인지 인수를 마무리했다. IMI엑스체인지는 B&M홀딩스의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자 케이먼제도에 설립된 회사다. 송영록 기자 syr@

리더스코스메틱, 中유통채널 확보

리더스코스메틱이 중국 내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등과 전략적 유통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리더스코스메틱은 지난 11일 서울 청담동에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위자후이’와 중국 홈쇼핑그룹인 ‘콰이러오우’와 각각 중국 내 공식 유통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리더스코스메틱과 각사 대표단은 중국 내 리더스코스메틱의 브랜드로

열티 강화와 다양한 소비자 마케팅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리더스코스메틱의 중국 공식 유통을 통해 중국 내 위조 화장품 유통을 방지하고 중화권 소비자들이 정품인증을 바탕으로 리더스코스메틱의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위자후이’는 중국 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이며, ‘콰이러오우’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의

현지 온라인몰·홈쇼핑 협력 위조 화장품 방지·정품인증

대표적인 홈쇼핑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올 하반기부터 ‘위자후이’의 온라인몰과 ‘콰이러오우’가 보유하고 있는 TV홈쇼핑 및 온라인몰 등을 통해 리더스코스메틱의 다양한 제품들의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리더스코스메틱은 현재 중국 내 최대 드러그스토어인 ‘왓슨스’를 비롯해 세븐일레븐, 패밀리카트, 월마트 등 전국적으로 약 4500여 개의 매장 수를 확보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코스온, 中쇼핑몰서 마스크팩 판매

코스온은 중국의 위자후이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자후이는 이번에 설립되는 합작법인을 통해 코스온이 생산하는 화장품과 마스크팩을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코스온과 위자후이는 각각 안정적인 매출처와 공급원을 확보하게 됐다. 양사는 향후 다양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위자후이는 오픈 소싱 전략을

통해 천연원료와 전문 과학기술의 접목 개념의 한국산 신규 화장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GD-11, 아가타 등 자체생산제품의 위생허가를 속속 취득하고 있는 코스온과 협력할 수 있는 제품군이 매우 다양하다. 코스온 관계자는 “1차로 마스크팩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차츰 위자후이가 원하는 다양한 제품군 역시 당사의 기술로 개발, 생산할 것”이라며 “이미 별도

화장품 전문 ‘위자후이’와 계약 “올해말까지 다양한 ODM 제공”

의 브랜드 합작법인 테스토포스(TF)티를 구성해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다양한 ODM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자후이는 2006년 중국 IT기업 샤오미와 중국국가개발위원회가 지분 참여를 하면서 설립됐고, 2014년 말 자체 보유 브랜드 ‘위니팡(御泥坊)’이 중국 마스크팩 판매시장 1위를 기록하는 등 화장품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다. 송영록 기자 syr@

공시 돋보기

김준기 회장 130억 또 사재출연 전자계열사 통한 그룹 재건 의지

채권단에 동부 1600만주 내놔 ‘하이텍’ 재무구조 개선에 쓰여 최근 대우전자·라이텍 등 4개사 1분기 동반 흑자달성 등 성장세

김준기 회장이 동부 주식 1600만주를 담보 제공하며 동부하이텍 지원에 나섰다. 전자와 금융 양측으로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김 회장의 사업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부하이텍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동부 보통주 160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담보 금액은 130억2400만원, 채권자는 산업은행 외 10개 금융기관이며 담보 기간은 이날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다. 담보 제공은 김준기 회장이 대주주로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신용보강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동부 주식 2252만2980주(12.37%)를 갖고 있으며, 이미 산업은행에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652만298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2009년 동부하이텍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0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동부건설에 540억 원, 동부LED 70억 원, 동부광한농 50억 원, 동부메탈 200억 원 등을 지원했다. 또 지난달 말에는 동부대우전자 250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60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동부하이텍과 동부대우전자를 통해 그룹을 재건하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동부는 3년 가까운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그룹 규모가 반 토막 났다. 구조조정 초기인 2014년 4월에는 재계 순위가 26위였다가 올해 45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전자계열사의 동반 흑자 기조 속에 동부하이텍 매각 철 회까지 이어지면서 금융과 함께 전자사업이 그룹의 미래를 이끌 사업으로 부상했다. 동부하이텍은 지난해 13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독자생존으로 결론났다. 지난해 15년 만에 1250억 원의 흑자를 내며 턴어라운드 성공했고, 올 1분기에도 407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 그룹의 전자사업을 이끌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도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최근 250억 원의 유상증자에 성공해 프리미엄 제품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올 1분기에는 30억 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체인 동부라이텍과 정보기술(IT) 사업을 담당하는 동부도 1분기 소폭의 이익을 내면서 전자계열 4개사가 동반 흑자를 달성했다. 조남호·권태성 기자 spdran@



삼성전자 투자받은 中BYD서 선코어, 전기버스 도입에 탄력

선코어가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업체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전기차 생산 업체인 중국 BYD(비야디)에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BYD 전기버스 배급 계획을 밝혔다. 15일 선코어 관계자는 “국내 1위의 기업이자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당사의 파트너사인 BYD에 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선코어는 현재 K9 전기버스의 국내 인증 절차를 받고 있으며,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국의 내연기관 시내버스와 CNG버스를 한 번 충전으로 300~350km의 주행이 가능하고 배기가스 제로인 BYD K9 전기 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BYD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BYD 지분의 약 2%에 해당한다. 중국 BYD는 미국의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오른 업체이며,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지난 2008년 미화 2억3000만 달러를 투자해 BYD 전체 지분 중 9.89%를 보유하고 있다. 선코어는 중국 BYD의 K9 전기버스 국내 수입·배급 업체로서 향후 2년 내 1000대의 전기버스를 들여와 배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국 BYD K9 전기버스는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영국의 런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폴란드의 바르샤바, 독일의 뮌헨,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 세계 32개국, 101개 도시에서 주목받으며 주행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케이에스씨비, ‘사후면세’ 이피코리아 인수 작년 마포·제주점 매출 300억… 올해 50% 이상 성장 기대

케이에스씨비는 국내 화장품 전문 사후면세점인 ‘이피코리아(마포)’ 및 케이이피코리아(제주)를 인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케이에스씨비는 이번 계약을 통해 4조 원 규모의 사후면세점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피코리아는 2009년 설립된 화장품 전문 사후면세점이다. 서울 마포와 제주시에 면세점을 갖고 있으며, 2014년 업계 최초로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국가 인증 우수 쇼핑점에 선정된 바 있다. 송영록 기자 syr@

특히 마포 면세점은 300평 규모의 대형 매장으로 홍대 주변에 있어 중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이피코리아의 매출은 약 300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사후면세점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사고, 구입한 매장에서 즉시 부가가치세(VAT)와 개별소비세(IGT)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장이 다. 송영록 기자 syr@

SAMSUNG

Windows 10

갖고 싶은 것을 가져라
혜택까지 쏟아진다



삼성전자 S'아카데미 PC 썸머아카데미

삼성 노트북 9 metal 업그레이드 신모델로 S아카데미가 핫하게 돌아왔다 2016년 7월 6일 ~ 2016년 9월 30일

- | | |
|--------------------------------|---|
| Event 1 PC 보상 판매 특별전 | 삼성 PC 구매 시, 구형 삼성 노트북 반납하면 최대 60만 원 현금 보상 혜택 증정 |
| Event 2 Hot Item 파우치 선물 | 노트북 9 metal 전 모델 '타거스 아트 컬렉션 노트북 파우치' 증정 |
| Event 3 특별 IT 패키지 혜택 | 노트북 + 올인원 PC 패키지 구매 시, 최대 10만 원 상당 혜택
 올인원 PC 행사 모델 구매 시, 프린터(SCX-1365) 무상 증정 |
| Event 4 썸머 추억만들기 프로젝트 | PC 행사 모델 구매 시, 후지 필름 Year Album 무료 제작 + 50% 할인 쿠폰 증정
 올레 TV 모바일 90일 무료 체험권 증정 |



삼성 노트북 9 metal

* 본 행사는 행사 매장 내 해당모델 구매 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반납하시는 구형 삼성 노트북의 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1대 구매 시, 1대 보상 가능합니다. *매장에 따라 보유 모델 및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혜택의 경우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 대상 및 일부 매장에 한합니다.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 상담사에게 문의 또는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체험판 제품으로 표시되었으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Windows Store 앱은 별도로 판매되며, 앱 종류와 사양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